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 슈타이너의 홀리스틱적 신체교육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임 영 희

# 슈타이너 홀리스틱적 신체교육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임 영 희


# 인준서


임영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安容奎 

심사위원 朴柱漢 

심사위원 金鍾真 

심사위원 韓龍震 

심사위원 金美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홀리스틱 전인교육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뿐만 아니라, 개인 자아와의 내면적 조화와 통일, 자아와 세계(사회, 인간, 환경)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려는 교육이다.

홀리스틱 전인교육의 의미와 그 지향점, 그리고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다움’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다움’이란 일반 사물이나 동물과 비교했을 때,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말할 때 ‘인간다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물이나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인간다움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체(體)와 영혼(德), 정신(智)의 조화를 통해 자아와 세계, 자아와 우주가 서로 소통하고 합일되는 자유로운 인격체를 말한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에 대한 개념규정은 “인지학은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인지학이 보여주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각적 인지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생의 존재와 그 일생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일반인간학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생명 이전의 삶과 생명 이후의 삶 전체를 통관(洞觀)하는 우주론적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을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조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영혼, 정신의 3중적 구조는 이 우주에도 동일하게 편재되어 있으며, 우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체(physical body), 생명체(에테르체 etheric body), 아스트랄체(astral body)가 인간에게 육화(incarnation)될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신체, 영혼, 정신이며 이들의 총합이 자아체(self body)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슈타이너의 3중적 4구성체론의 특징은 인간을 단순히 물질체, 영혼체, 정신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존재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자연과 우주로 확장하여 유기적인 존재로서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 이는 인간 존재가 인간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으로 확장 연결되며, 이들 관계의 유기적인 소통과 통합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홀리스틱적 존재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슈타이너는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인간의 완성을 위해 인간 발달 특징에 대해 언급하며, 인간 발달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대략 7년을 단위로 특징적인 발달 단계가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인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0~7세의 물질체 발달기로서 이 시기는 신체와 영혼, 정신이 아직 자각하지 않은 미분화의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 요소, 즉 감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시기이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인간 발달론은 감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감각은 어린 영아에게만 특별히 발달된 것이다. 이 감각에서 주어지는 느낌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감성과 감정이 생기며, 이 감성과 감정은 지각과 인지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습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습관은 오랜 반복의 결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성장 후 그 사람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 지각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슈타이너는 신체적 감각에 의한 인상에 의해 유아는 모방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어른은 어린이의 직접적인 모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유아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2기는 7~14세의 자아형성기로서 7세 이전까지 완전하게 분화되지 못한 신체와 영혼, 정신이 이제 각각의 독립된 자아의식을 지니며, 빠른 속도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감각에서 시작된 감성과 감정의 '느낌(feeling)'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아는 자기중심적인 인식의 발달을 의미한다. 특히 2단계에서 자아의 형성은 주로 감성과 감정의 활성화와 관계한다. 이때 형성된 감성과 감정은 한 개인의 성향과

기질, 의식, 성격, 기억,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제3기는 14~21세의 사고 발달의 시기로서 사춘기를 지나 육체, 영혼, 정신의 세 요소가 보다 정교하게 분리되며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를 절대적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의 시기라고 말한다.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슈타이너의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신체교육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간과하였던 영혼과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신체와 영혼, 정신이 통합된 인간을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 교육을 실천하였다.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을 통해 인간을 신체와 영혼, 정신이 조화된 홀리스틱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혼과 정신은 합리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것을 교육과 스포츠에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교육은 합리적 이성만을 중시하는 주지주의적 두뇌교육에 편향되어 있거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신체적인 단련과 고도의 기술만을 요구하는 체육·스포츠계의 현실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합일적 관계를 무시하거나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여 편향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사회의 병리적 비인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이러한 편향된 교육의 병폐로부터 신체와 영혼, 정신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홀리스틱 교육을 통해서 심신의 조화를 이룬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이룬 자유로운 인간을 지향하였다.

둘째,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지학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의 영역을 제공하였다. 슈타이너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열망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지학적 사상은 인간 존재를 현재적 삶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확

장하여 신체의 영역을 영혼과 정신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인간존재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적인 사멸을 통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의 순환과 변화, 생성을 통해 우주와 관계한다는 의미로, 오늘의 교육에 인간의 존재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슈타이너의 사상은 아동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교과과정에 감각의 발달과 감성과 감정의 풍부함, 그리고 이성과 정신의 개발을 위한 교과로 구성하였다. 오늘날 체육·스포츠계의 오직 신체적 단련만을 추구하는 기술연마 교육은 모두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깨트린 교육으로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전인교육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자율적 인간 본성의 회복과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인격형성에 있다. 그리고 체육·스포츠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 인간상은 메달권 박스에 진입하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조화로운 미학적 인간상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슈타이너의 주장은 인지학에 기초하여 국가나 정치의 예측에서 벗어나 일선 교사의 자율적인 교과운영과 창의적인 지도로 각 아동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간과 세계를 통합한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물질문명 사회에서 메말라가는 감성적 인간과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교육은 오늘날의 교육에 더없이 절실하게 요청되며, 슈타이너의 사상은 우리에게 실천적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슈타이너의 신체교육의 특성은 일상적 삶으로의 구체적 실천에 있다. 그 실천은 다름 아닌 자연과 우주, 인간과 사회 관계에 있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존재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3. 선행연구 .....	7
II. 인지학과 인간 발달론 .....	14
1.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인간 구성 .....	14
1)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세계관과 인간관 .....	14
2) 3중적 구조와 4구성체에 대한 이해 .....	20
3) 소우주로서의 인간이해 .....	24
2. 인간 발달의 일반원리 .....	29
III. 슈타이너의 발달단계와 신체교육 .....	39
1. 물질체 발달기 : 0~7세 .....	39
2. 자아형성기 : 7~14세 .....	41
3. 사고발달의 시기 : 14~21세 .....	44
4. 신체적 발달론에 수반된 교육 .....	50
1) 슈타이너의 신체관 .....	50
2)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른 교육 .....	56

IV. 인지학에서의 홀리스틱 인간형성의 의미 .....	65
1. 근대교육과 홀리스틱교육 .....	65
2.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홀리스틱 .....	67
1) 자아와 사회관계의 조화 .....	70
2) 자아와 우주의 소통(understanding)과 합일(unity) .....	74
3) 우주의 소통과 합일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	78
3. 홀리스틱적 신체교육과 오미리트미 .....	80
1) 신체교육을 위한 놀이와 공작교육 .....	80
2) 학년별 신체운동프로그램 .....	84
3) 오미리트미 적용 및 응용 .....	85
V.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신체교육의 실천 .....	94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연차별 슈타이너 관련 단행본 .....	9
<표 2> 연차별 슈타이너 관련 학위논문 .....	10
<표 3> 연차별로 슈타이너 관련 연구논문 .....	12
<표 4> 3중적구조로 본 홀리스틱한 인간존재의 형성 .....	22
<표 5> 인간의 아홉 감각영역 .....	25
<표 6> 신체에 나타난 감각에서 절대정신으로의 발전 분류표 .....	28
<표 7> 플라톤의 인간교육 발달단계론 .....	31
<표 8> 피아제 인지발달단계 .....	36
<표 9> 인간 인지능력의 발달단계 .....	44
<표 10> 슈타이너의 신체발달 형성의 과정 .....	46
<표 11> 슈타이너 12감각기관의 역할 .....	49
<표 12> 근대화 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비교 .....	66
<표 13> 연령별 신체교육을 위한 놀이 및 공작교육 .....	82
<표 14> 오이리트미 적용 프로그램 .....	86

## 그림 목 차

[그림 1] 3중적구조 .....	21
[그림 2] 운동발달의 단계(Gallahue, 1982) .....	55
[그림 3] 오이리트미 동작(A·E·I·O·U) .....	86
[그림 4] 원 오이리트미 .....	88
[그림 5] 몸 주위로 돌리기 .....	89
[그림 6] 8자 그리며 흔들기 .....	89
[그림 7] 양팔로 8자 그리기 .....	90
[그림 8] 스텝하면서 구리막대 떨어뜨렸다 올리기 .....	90
[그림 9] 안쪽 바깥쪽 작은 원 그리기 .....	91
[그림 10] 몸 회전하면서 구리막대 회전하기 .....	91
[그림 11] 음의 고저 오이리트미 .....	93
[그림 12] 음계 오이리트미 .....	93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즉 ‘人間(인간)’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이란 사람(人)과 사람(人)의 ‘사이(間)’를 말한다. 여기서 사이(間)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형이상학, IV)라는 의미는 인간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오직 인간과 자연 우주와의 끊임없는 교감과 합일 속에서 좀 더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어쩌면 인간의 존재는 ‘관계(relation)’에서 규정되어지는 존재일 수 있다. 여기서 관계는 다름 아닌 사회성을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규명하고자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다.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인간의 존재를 ‘사회적 동물’로 규정하고, 플라톤은 인간의 규정을 ‘영혼으로서의 인간’(Laws, 959b)이라고 규정한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해 왔으며, 지향하는 목적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다움’으로 육성하여 사회지도자로 또는 건전한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육 방법론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재를 신체<sup>1)</sup>와 영혼, 정신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을 때, 이들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육방법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데카르트의 경

---

1) 물질체 또는 질료적 의미로서 육체(physical body, flesh)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우 신체와 영혼, 정신을 이분해서 바라보며 신체보다 이성(정신)을 상위개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식 교육에서는 신체교육보다는 이성 우월주의 교육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현대교육의 특징도 서양의 이러한 이성 중심적 사유방식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하는데 있으며,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와 균형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신체 혹은 이성(정신), 또는 영혼(감성)위주의 개별 분리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정미라, 1995: 249~264). 체육교육에 있어서도, 체육이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훈련만 강조하고 영혼과 정신에 대한 이해나 이들 관계를 고려한 교육이 부재하다면, 신체 교육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통합하고 유기적 조화를 꾀하고자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그 일련의 노력 가운데 가장 이슈화된 것은 인간의 존재를 전인적 존재, 또는 홀리스틱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였다. 이들은 인간과 환경을 유기적 통합체로 인식하며, 인간의 존재를 자연과 일치시켜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홀리스틱’ 연구는 전반적으로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본능, 마음과 몸, 개인과 공동생활, 인간과 자연환경 등, 유기적 조화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홀리스틱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학습목표가 되고 있다.

오늘 체육·스포츠 교육현장에 있어서도 ‘홀리스틱’사상은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홀리스틱’은 그 사람의 총체적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신체, 영혼(감성) 또는 정신의 한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인’은 한 개인이 존재하는 삶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인교육은 신체(감각)뿐만 아니라 영혼(감성), 정신(이성)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존재의 특성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몇 가지 이론이나 구획된 작업에 의해 연구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통

시적인 안목에서 통찰하는 연구 작업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를 들 수 있다. 그의 인지학 사상은 현재 홀리스틱한 전인교육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학을 기반으로 한 슈타이너의 사상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학문적 연구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슈타이너 교육의 초점은 아동들이 신체, 영혼, 정신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이들 세 가지가 잘 융합되고 조화롭게 구성됨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전인적 존재(whole being of man)로서의 인간을 배워나가는데 있다(Gilbert Childs, 1991: 107)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 인간의 존재를 신체·영혼·정신의 결합체로 보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단순히 물리적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세 범주는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존재, 혹은 생명력은 신체, 영혼, 정신의 조화로운 결합에 의해 운영되는 유기체이다. 슈타이너는 이 세 부분이 몸에서 서로 연결, 통합되어 있으며 그 작용이 상호연관성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신체는 감각하는 기관이다. 물론 이 감각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감각은 영혼이 내재되어 있어서 세계와 의미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빅터 E. 프랭클 / 오승훈 역, 2005: 25~27). 그리고 영혼은 정신과 더불어 더 고차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영혼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정신이 더 확충시켜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보다 고차원적으로 깨닫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신체·영혼·정신의 작용이 한 몸에서 이루어지면서 상호보완, 연결, 통합되어 인간성장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인간의 전인적 인간의 본성을 이루게 된다.

오늘 체육·스포츠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교육보다는 신체와 영혼, 마음이 분리되고 독립된 구조로 인

식하고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적 경향성을 읽어볼 수 있었다(조한무, 2004: 65~91).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전인교육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전인교육에 관한 통합적(holistic)관점에서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오늘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이들이 내놓는 전인 교육의 대안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며, 현실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결(缺)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존재를 자연과 환경, 우주로 확장하여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연구’는 인간의 전인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되리라고 본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 몸을 영혼(마음, 인격), 정신이 함께 갖는 유기적 총합의 조화로운 인격체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슈타이너는 다양한 교육을 인간성장의 발달단계에 따라 실천, 적용하였다. 그 예가 발도르프교육과 오이리트미 예술교육이다. 슈타이너는 인간에 대한 인식의 폭을 ‘신체’에 머물지 않고, ‘신체’, ‘영혼’, ‘정신’의 세 부분으로 확대하여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였다(김미숙, 2006: 302).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홀리스틱교육의 구체적 실천과 방법을 체육·스포츠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 대안적 모색을 슈타이너 인지학 사상에서 찾아보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전인교육의 구체적 실천과 방법을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인간성장 발달에 따른, 전인적 인간형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전인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실천을 알아봄으로써 오늘날 체육·스포츠계에 어떻게 접목, 실천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내용과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슈타이너는 인간을 신체와 영혼, 정신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간은 한 단계 한 단계 육화(肉化; incarnation)의 과정을 밟아 가는 정련(精練; scouring)과 변태(變態; metamorphosis), 발달(發達; development)을 거쳐서 완성되는 존재로 인지하였다. 이는 슈타이너가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발도르프학교 교육과 오이리트미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면(신체, 영혼, 정신)이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이다(한국루돌프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1997: 31). 즉 그는 인간을 육체로부터 이성과 감성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교육의 목표를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에 둔다. 즉 교육의 포커스를 ‘현재 사회질서를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묻는 대신에 ‘각 개체 안에 무엇을 배울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가?’ 또는 ‘각 개체 안에 무엇이 발달, 형성될 수 있는가?’에 둔다. 인간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식물을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변화하는 인간, 즉 인간의 발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신체, 영혼, 정신의 통합적인 발달을 의미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은 물질로서의 신체 성장만으로는 도저히 설명 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인 것이다. 슈타이너의 교육관은 지식의 전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교육관이나 한정적이고 일률적인 교육과는 다른 입장이다. 즉 슈타이너는 성장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김미숙, 2003: 9~10).

이 논문에서는 슈타이너 인지학을 토대로 슈타이너 인간성장 발달론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이며 그 지향점은 슈타이너의 전인적 인간형성에 맞추어

질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접근 방법으로는 문헌분석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슈타이너 인지학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로서, 인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인간관,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 구성을 살펴보고, 인지학의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중적 구조, 4구성체에 의한 인간 발달론과 이를 통해서 바라본 인간구성의 본질을 탐구 및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초한 인간 발달론을 중점 연구하였다.

특히 슈타이너인지학에서의 인간 발달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접학문과 역사적인 내원의 관계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고, 희랍철학자 플라톤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인간 발달론을 먼저 살펴보고 플라톤의 전인교육론에서의 인간 발달론이 슈타이너의 전인교육에서의 인간 발달론과 인간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검토하였다. 동시에 인접학문인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에서의 주요 개념과 발달론을 고찰하면서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발달론을 미시적으로 연구하였다.<sup>2)</sup>

제Ⅲ장에서는 슈타이너의 발달단계와 신체교육의 의미를 고찰하며, 신체적 발달론에 수반된 교육을 통해 슈타이너의 신체관과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른 교육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인지학에서의 홀리스틱 인간형성의 의미안에서 근대교육과 홀리스틱교육을 비교하고, 슈타이너 인지학적 관점에서 홀리스틱 교육의 신

---

2) 아동인지발달심리학(cognitive developmental psychology)을 개창한 피아제(Jean Piaget)의 이론을 슈타이너의 인지학(Anthroposophie)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피아제가 인간발달론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슈타이너와 함께 비교 검토함으로써 슈타이너 인간발달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인지(cognitive)의 개념은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적 개념이다. 즉 뇌의 신경생리학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인지 개념이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인지학(Anthroposophie)은 신체 생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예지 및 인식에 대한 탐구로 '인간의 자아발견과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운동프로그램과 오이리트미 적용을 하였고, 자아와 사회(인간)관계의 조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절대적 자아의 발견과 구현으로서의 자유로운 인간론인 자아와 우주의 소통과 합일(合一)을 연구하였다.

제 V 장에서는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신체교육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첫째, 그동안 개념적 정립에만 머물러 있던 슈타이너 인지학적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신체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철학적 사유와 인식의 지경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둘째, 슈타이너 인지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과 신체운동의 하나인 오이리트미가 인간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이기에, 이를 토대로 오늘날 우리 체육·스포츠학계에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형성을 위한 신체교육과 신체운동프로그램방법 등의 실천방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 3. 선행연구

슈타이너의 사상과 교육실천은 약 9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증을 거치면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 760여 개의 학교가 있으며 1400여개의 유치원과 1200여개의 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경기도 분당에 유치원과 과천에 자유 발도르프 학교(초등대안학교)가 있다(정수진, 2006: 18).

슈타이너 학교는 가장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갖춘 대표적인 홀리스틱 교육의 실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Gillbert Childs(1991), Roy Wilkinson(1977) 등은 슈타이너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슈타이너 교육사상과 관련해서 교육학계에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학교에 대한 연구’가 소개 되었다.

1993년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론」이 고려대학교 교육철학 연구회에서 강독·번역되어졌고, 지금까지 많은 논문들과 슈타이너의 저서들이 번역되어 지고 있다.

슈타이너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소개와 내용에 관한 문헌과 연구논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연차별 슈타이너관련 단행본

년도	저자	책 제목	출판사
1998	크리스토프 린덴베르크 / 이정희 역	슈타이너	한길사
2000	정윤경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학교	내일을 여는 책
	프레야 야프케 / 윤선영 역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서의 놀이와 작업	창지사
2001	헤닝 한스만 / 홍미영 역	장애아동을 위한 발도르프 치유교육 (부제:캠프힐 학교의 이론과 실제)	반디출판사
	루돌프 슈타이너 / 김성숙 역	교육은 치료다	물병자리
2002	라히마 볼드윈 댄시 / 강도은 역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번째 선생님입니다	정인출판사
	윤선영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첫걸음	문음사
2003	고야스 미치코 / 임영희 역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	밝은 누리
	고야스 미치코 / 임영희 역	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감성교육	밝은 누리
	루돌프 슈타이너 / 김성숙 역	오이리트미 예술	물병자리
2004	루돌프 슈타이너 / 김성숙 역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 인간학	물병자리
	에바 미스 크리스텔러 / 정정순 역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예술 치료	학지사
2005	윤선영	발도르프 리듬생활 만들기	문음사
	정윤경	발도르프 교육학	학지사
	고야스 미치코 / 임영희 역	독일의 자존심 발도르프 학교	밝은 누리
2006	루돌프 슈타이너 / 김성숙 역	교육예술	물병자리
	토린 M. 핀서 / 과천자유학교출판국	8년간의 교실여행	과천자유학교출판국
	루돌프 슈타이너 / 최혜경 역	발도르프 학교와 그 정신	밝은 누리
2007	루돌프 슈타이너 / 이호경 역	루돌프 슈타이너의 영혼달력	섬돌
2008	크리스토퍼 클라우더 / 박정화 역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	양철북
	알베르트수스만 / 서영숙 역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섬돌
	프란스 칼렌, 아르네 클링보르그	자유를 향한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학)	섬돌

<표 2> 연차별 슈타이너 관련 학위논문

년도	저자	연구제목	수록문헌
1998	정윤경	슈타이너의 人智學的 教育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0	김민아	신체활동을 통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만 3,4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1	김성원	루돌프 슈타이너의 유아교육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반채익	학교교육에서 자유의 의미와 한계 : 서머힐학교와 발도르프 학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2	김미숙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 -오이리트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3	강상희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s paedagogik)의 기초 인지학 (Anthroposophie)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고은지	감성능력 증진을 위한 유아 미술교육 : 독일 자유발도르프 유치원 미술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4	김선영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교육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5	송승원	슈타이너와 몬테소리의 유아교육론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이하나	발도르프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방법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이진정	Rudolf Steiner의 오이리트미 예술교육 연구 : 공연예술이 갖는 예술교육적 의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임지영	슈타이너 이론에 의한 발도르프 학교의 통합적 음악교육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염주희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한 연구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이연주	루돌프 슈타이너의 오이리트미 교수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정미나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에 기초한 미술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정부예	슈타이너 사상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6	김민	Rudolf Steiner 人智學에 기초한 全人的 幼兒教育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김삼숙	발도르프 학교 습식 수채화를 통한 심상표현 지도 연구 :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신정	발도르프 학교의 통합적 미술 교육 형태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교육대학교

년도	저자	연구제목	수록문헌
2006	문채련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5세 유아의 활동분석 : 발도르프 프로그램과 생활주제중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07	김정윤	발도르프학교의 음악교육 방법을 적용한 음악사 수업 :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형미	오이리트미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장기수	슈타이너 교육사상에 기초한 미술 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미옥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사상에 의한 초등 미술교육지도 방안 연구 : 수채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8	김효진	R.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Formen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 -초등학교 1, 2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윤옥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방법과 그 적용 :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정영경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 방법을 적용한 수업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조혜령	독일 발도르프 음악교육의 활용방안 : 우리나라 중등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조연제	발도르프학교의 미술교육방법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조영주	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육에 기초한 미술교육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9	강은주	마인드 맵을 활용한 미술 표현에 대한 연구 : 발도르프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강현주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유치원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박수영	독일 발도르프 초등교육에 비추어본 한국 발도르프 초등 학교의 특징 탐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박정민	초등 1·2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 교육과 발도르프 교육의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윤덕순	슈타이너 교육이론에 기초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윤지현	발도르프 학교의 자유의 의미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윤희정	루돌프 슈타이너와 마리아 몬테소리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이반디	중등 음악교육에 발도르프학교 음악교육의 적용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표 3> 연차별로 슈타이너 관련 연구논문

년도	저자	연구제목	수록문헌
2000	김미숙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과 체육교육의 방향	한국체육철학회지, 8(1).
	김성숙	슈타이너의 포르멘선묘	미술교육논총, 10.
	조용태, 김성원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과 인간 기질에 관한 연구	교육학 논총, 21(1)
2001	권준범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김건환	독일 Waldorf(발도르프)학교에 대한 고찰: 일반 (공립)학교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성숙	슈타이너의 미술 교육사상에서 낭만주의 정신과 의 연관성 : '동경'과 '상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연 구논총, 12(1)
2002	김성원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학 논총, 23(2)
	반채익	발도르프 학교의 아동교육관	교육연구논총, 23(1)
2003	구경선	"어린이로부터"의 교육: 몬테소리와 슈타이너 비교 연구	한국몬테소리교육연구, 8.
	김미숙	신체운동으로써의 오이리트미의 특성	한국체육철학회지, 11(2).
	김영래	영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홀리스틱 교육운동의 의미: 발도르프 교육의 지식이해를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7(1).
2004	임용자	슈타이너의 동작예술 -유리드미(EURYTHMY)-	한국예술치료학회, 월례학술발표회, 29.
2005	송주승, 송주병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과 독일 발도르프학 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35.
2006	윤선영	교육예술"로서의 교육과 "예술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고찰-발도르프유아교육 관점에서	한독교육학연구, 11(1)
2007	김소라, 박연선	초등학교 1, 2 학년 색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슈타이너의 습식수채화 활용을 중심으로 -	한국색채디자인연구, 3(1).
2008	박용석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관점에 따른 유아 및 아동 의 발달과정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3)
	황인선	발도르프학교의 음악교육에 기초한 수업지도안 제안 -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2(1)
2009	김미숙, 임영희	슈타이너의 인지학에서 신체의 의미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정윤경	인지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한독교육연구, 14(1)

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에 관해 예술영역에서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체교육(체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자료가 부족하며, 특히 인간발달과정의 신체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서 홀리스틱, 인지학, 오이리트미 등에 관한 충분한 학문적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체교육의 의미와 발달과정에 따른 신체운동에 관해 연구하였다.

## II. 인지학과 인간 발달론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는 1861년 2월 25일 철도 전산원이던 요한 슈타이너와 프란치스카 사이의 장남으로 헝가리 크랄예베치에서 태어났고, 비엔나 대학 시절에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피히테(Johann G. Fichte)를 연구하고 셸링(Friedrich W. Schelling)과 헤겔(Gerg W. Hegel)의 영향을 받았다.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와 괴테아눔을 설립, 개관하고 자연과학, 의학, 천연 역학적 농법 강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치유교육 코스를 통해 특수교육을 창설, 교육학, 미학과 예술의 감성적 인식을 체계화 시킨 오이리트미(Eurythmie)<sup>3)</sup> 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슈타이너의 삶의 미적 감수성이 예술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인간 구성

#### 1)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세계관과 인간관

슈타이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한 내적 경험을 계시나 신비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인식’의 문제로 본 것은 정신세계에 대한 내적 경험에서도 자연과학적 객관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재를 인식하는 앎’이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과 ‘사고과정’을 통한 발전적 ‘개념’임을 강조한다.<sup>4)</sup>

슈타이너는 자신이 인식하는 ‘앎’은 오로지 정신활동의 주체적 사유에 의

---

3) 오이리트미(Eurythmie)는 희랍어로 ‘아름다운(eu) 리듬(rythmie)’을 의미한다.

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나(Ich)’는 정신의 반성적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각과 앎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물질적인 면은 감각기관이 지각하는 것을 통해 인식되고, 정신적인 면은 사고를 통해 발견되고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감각기관과 사고의 결합은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감각과 사고를 결합하여 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직관이 있는 존재임을 말한다.

슈타이너의 직관은 칸트의 ‘선형적(a priori)’과 ‘초월적(transzendental)’ 개념과 다르다. 칸트에서 ‘아 프리오리’란 ‘단적으로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의)(KrV B 3; A 2)’, 또는 ‘모든 현실적인 지각에 앞서(의)(A 42, B 60)’, ‘대상에 대한 모든 지각에 앞서(B 41)’, ‘모든 감각 인상들로부터 독립해서(의)(B 2)’ 등을 의미한다(F. 카울바하 / 백종현 역, 1992: 312). 즉 지각과 감각, 경험을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순수한 칸트의 선형적, 이데아적인 관념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아 포스테리오’는 ‘경험에 근거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혹은 간단히 ‘경험적(empirisch)’을 뜻한다. 즉 아 프리오리/아 포스테리오를 나누는 기준이 ‘신체적 경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 ‘선형적’이라는 말은 ‘경험보다 앞서(의)’를 뜻하며 아 포스테리오는 ‘후형적’이라는 ‘경험보다 나중(의)’을 뜻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세심한 개념적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erfahrung)이라는 말은 칸트철학 내에서 보면 감각기관에 의한 대상 수용 즉 감각경험을 뜻한다. 이 때 경험은 지각(wahrnehmung) 혹은 ‘감각이 수반된 표상’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선형적’/‘후형적’인 의미

---

4) Rudolf Steiner의 『자유의 철학』을 최혜경이 번역(2007b)한 책(출판: 밝은 누리)으로서 독일어판 원제목은 *Die Philosophie der Freiheit*,이다. 영문번역으로는 William Lindeman *The Philosophy of Spiritual Activity* (New York: Anthroposophic Press, 1986)가 있다.

는 ‘순수한(rein)/‘경험적(empirisch)’인 의미와 같다. 그래서 선형적이라는 말에는 ‘순수한’, ‘어떠한 감각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F. 카울바하 / 백종현 역, 1992: 315). 그러나 슈타이너에 있어서 직관은 철저히 신체의 감각적 원인과 결합되어 있다. 감각을 떠난 영혼이나 정신은 있을 수 없다.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신체는 영혼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영혼과 정신은 신체를 더 조화롭게 하는 인식과 세계관으로 본다(정윤경, 2000: 47). 따라서 그는 인간 내면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인식론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원한 것을 탐구하는데서 인간의 본질을 탐색한다. 이는 그가 인간학(Anthropologie)을 인간의 본질, 혹은 본성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학에서의 인간론은 결국 인식론적, 그리고 과학 이론적 근거에서 인간의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학(Anthropologie)은 인간을 물리적인 관찰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지학(Anthroposophie)은 이러한 관찰, 즉 물리적인 사실에서 이러한 사실의 정신적인 근거를 추궁하고자 한다. 결국 인지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학에서 신지학(Theosophie)으로 인도된다(최종인, 2004: 9).

슈타이너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결국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감각적 존재를 넘어선 예지, 인간의 사명과 본질을 밝히는 예지와 인식을 슈타이너는 ‘신의 예지’ 즉 신지학이라고 말한다(Rudolf Steiner / 양역관 역, 2001: 17). 따라서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신지학은 인지학과 함께 상호 연결 관통하는 학문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인지학과 신지학이 구분될 수 있는 변별적 차이는 인지학에서는 인간을 우주 세계

와 현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중요 관심사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 세계를 파악하는 인식을 개발하는데 있다(김미숙, 2003: 13). 그렇다면 신지학과 인지학에서 슈타이너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는 인간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인간은 눈앞에 주어진 세계와 관련이 있다.

둘째로, 인간은 세계를 그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엇으로 삼는다.

셋째로, 인간은 그것을 끝없는 노력의 목표로 삼는다.

(Rudolf Steiner, 2001: 20)

여기서 슈타이너는 인간을 구성하는 신체, 영혼, 정신<sup>5)</sup>은 늘 세 가지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즉 신체는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눈앞에 주어진 세계와 관련이 있고, 영혼은 “세계를 그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엇으로 삼는” 것처럼 사물을 자신과 관련시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싫고 좋고, 기쁘고 슬프고 느끼는 감정의 주체이다. 그리고 정신은 ‘신적 태도’로 (인간 본성의 실재를 파악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끝없이 노력을 하는 주체로 파악한다(Rudolf Steiner, 2001: 22).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체, 영혼, 정신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본다. 신체는 사물과 직접적인 연결을 하는 주체이며, 영혼은 사물이 주는 인상에 의해 의미망을 형성한다. 그리고 정신에 의해 보다 고차적인 방식으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세계 속에서 인간은 사물과 늘 관계하면서 자기 인식의 동일성을 확대해 나간다. 인간은 사고과정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추상작용을 하며, 그 의미

---

5) 『신지학』을 번역한 양역관은 신체, 영혼, 정신을 몸, 혼, 영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논의는 슈타이너 사상의 맥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몸을 신체로, 혼을 영혼으로, 영을 정신으로 번역하였다.

망과 인지작용을 통해 희로애락의 감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 고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방식을 세계와 대자적으로 풀어간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신체만을 고려하지 않고, 영혼의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내면세계를 형성해가며, 그것이 정신세계와 관계를 맺어 가는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로 인간을 파악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슈타이너는 보았다(정윤경, 2000: 76). 이는 그 당시 신체와 관련해 좁은 의미에서 인간학을 바라보았던 것에서, 영혼과 정신의 영역을 확장하여 신체와 영혼, 영혼과 정신, 정신과 신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을 이해했다는 것이 슈타이너 인지학이 가지는 의미라고 본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228 ~ 243). 인지학은 인간의 지각 가능성의 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인식의 중심에 신이 아닌 인간을 둔다. 즉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인식능력을 각성시키고 단련하면 일종의 투시력이 생겨, 정신적 세계가 직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미숙, 2003: 14).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오이리트미(Eurythmie)를 통해 개화(開花)된다.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일반 무용이나 동작과 달리 언어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오이리트미는 조화로운 정신적 동작을 중시한다는 점이 이들과 다르다. 특히 오이리트미는 언어의 소리 이미지들을 통한 인간의 내면성의 동작표현을 추구한다. 모음과 자음에서 출발하는 오이리트미는 소리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움직임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변용하여 표현하는 언어무용예술이다. 오이리트미는 ‘영혼이 머무는 동작’으로 학습을 통해 마치 호흡처럼 어린이의 내면과 외면세계의 조화를 꾀하고자하는 것이다. 즉 모음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외부세계를 나타낸다. 오이리트미에서 몸을 조율하는 활동의 기본은 먼저 몸을 곧게 세우고 지면과 수직으로 바르게 서서 몸 안에 자기의 중심을 느껴 보는 것이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8 ~ 10). 어떻게 보면 오이리트미는 슈타이너 사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오이리트미를 통해 인지학이 구성한 ‘자유로운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표현되고 구성되는지 잘 보여준다. 오이리트미를 일컬어 영적인 체조(en souled gymnastic), 신성화된 무용, 절대 무용, 정신적 무용, 에테릭 체조 등으로 불리는 것은 슈타이너가 오이리트미를 통해 깨어진 생명력과 인간의 원형적 모습을 고대 그리스에서 볼 수 있었던 내적 조화와 내적 균형을 갖는 동작을 고려하여 물질주의에 매몰된 현대문화의 정신성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미숙, 2003: 55). 슈타이너는 언어를 몸짓으로 규정한다.<sup>6)</sup> 즉 언어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 영혼, 사물에 대한 인식이며,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가장 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Rudolf Steiner / 김성숙 역, 2003: 40~77).

그가 언어를 몸짓의 변용이라고 본 것은 서양근세철학사가 변별적 언어를 통해 구성된 ‘이성’을 선형적 이데아로 표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이다. 이는 그가 신체와 영혼, 정신이 ‘몸’에 통일되어있다는 깊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이다. 몸짓 언어에 신체적 감정, 영혼의 느낌, 정신의 의지가 통일되어 있음을 다음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 생겨났습니다. 모음을 예로 들어봅시다. 모음은 항상 영혼이 체험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놀랐을 때는 a로, 저항에 부딪혔을 때는 e로, 자기주장을 하거나 전진하여 세상에 나가려는 태도를 나타낼 때는 i로, 어떤 것에 대한 경탄이나 순응은 ei로 표현합니다. (중략) 모든 모음은 영혼 본래의 활동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두뇌로부터 언어로 옮겨가는 사고(정신) 내용과 결합하는 것입니다(Rudolf Steiner, 2003: 52).

---

6) 여기서 말하는 몸짓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반영으로서의 몸짓을 말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신체와 몸 안에 전우주의 진화과정과 치유의 역사, 그리고 세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체, 영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몸 안에서 그 작용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삼원구도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관점은 인간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 2) 3중적 구조와 4구성체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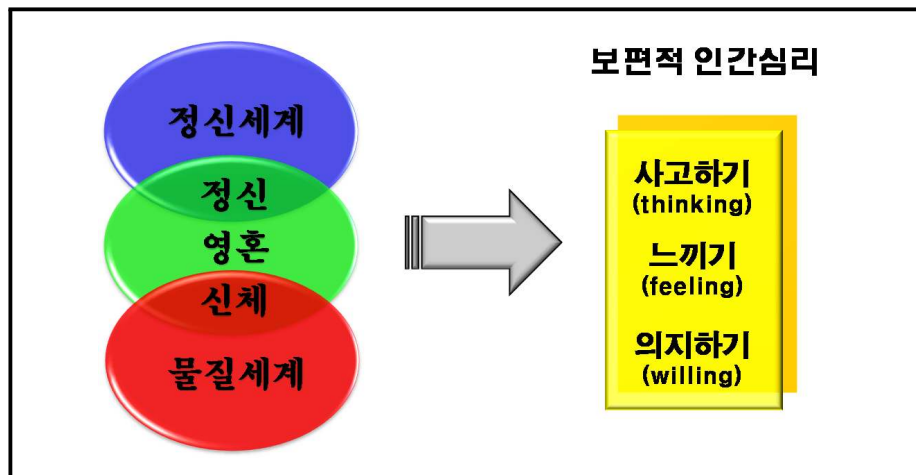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3중적 구조와 4구성체로 이해하였다.

그는 먼저 인간의 존재가 육체(body), 영혼(soul), 정신(spirit)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재를 3중적 구조로 본 것은 그리스 희랍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기원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존재를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의 존재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엔텔레케이아’는 육체와 영혼, 정신이 잘 어우러진 전인적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와 영혼’은 인간의 전인적 구성에 있어서 질료인, 동력인의 역할을 하며, 정신은 최고의 이상적 상태를 지향하는 내적 동인으로서의 목적인이 된다. 그리고 이 세 구성요소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텔레케이아’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엔텔레케이아’는 인간의 전인적 존재, 혹은 홀리스틱한 존재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슈타이너도 인간존재의 구조를 3중적 구조에서 보았지만, 그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단순히 3중적 구조에서만 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3중적 구조를 통해서 인간을 우주의 홀리스틱한 존재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그의 3중적 구조의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다른 학자들과 차별화되는 요

소이기도 하다. 그의 3중적 구조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분류한 구조는 자연과 우주로 확장된다. 이는 인간 존재가 인간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으로 확장 연결되며, 이들 관계의 유기적인 소통과 통합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전인적 존재를 찾고자 하였다.

3중적 구조에서 영혼은 생각하는 것(사고), 느끼는 것(감정), 의지하기(행위)로 구성되었다. 이 세 작용은 신경체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3중적 구성체는 기능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중요시 하였다. 이 세가지 구성체는 서로 독립되어있지 않고 서로 얽혀져 있다. 느낌은 사고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사고는 의지하기에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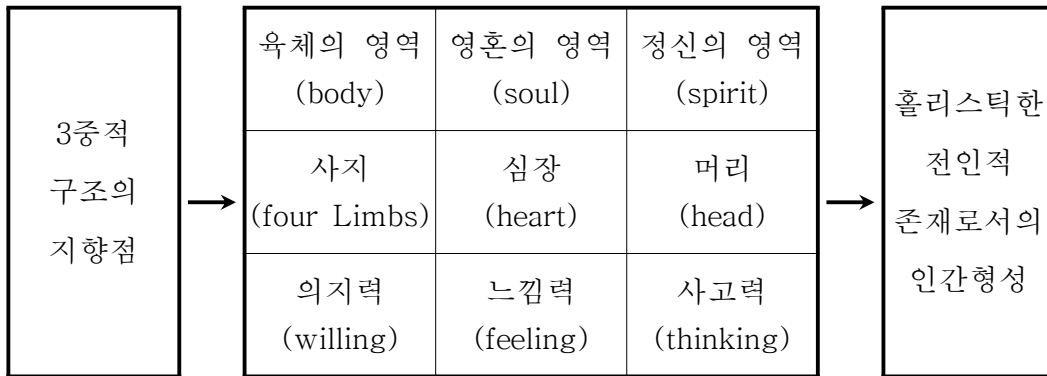
[그림 1] 3중적구조

“심장에는 느낌들이 짜여있고  
머리에는 사고가 빛나고 있으며  
사지에는 의지의 힘이다.”

(발도르프교육자료 모음집10, 2002: 19)

위에 [그림 1]은 슈타이너 3중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으로 심장=느낌, 머리=사고, 사지=의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느낌=영혼, 사고=정신, 의지=신체로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3중적구조로 본 홀리스틱한 인간존재의 형성



우리는 <표 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슈타이너 3중적 구조의 지향점은 홀리스틱한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형성에 있다. 슈타이너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인간의 3중적 구조가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체계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 3중적 구조가 주체적인 자기조직화의 능력이 있는 ‘홀리스틱한 인간’으로 형성하도록 ‘충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충동’ 개념은 본능적이며, 생명적인 경향이 강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자기의 자신다움’ 또는 ‘인간의 인간다움’으로 향하는 의미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차별성은 홀리스틱 인간형성을 향해 돌진하는 본능적인 ‘충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능적 충동이 홀리스틱한 인간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들 3중적 구조가 서로 연합하여 유기적인 조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3중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영혼의 영역인 느낌의 발달이다. 슈타이너 교육의 핵심은 ‘느낌’의 발달에 있다. 발도르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작교육과 미술교육, 음악교육과 무용교육은 모두 감성적 느낌의 개발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슈타이너는 의지(육체의 영역)나 사고(정신의 영역)의 발달보다, 영혼의 영역인 ‘느낌’의 발달에 중점을 두었을까? 이는 ‘느낌’이 인간발달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고와 정신, 의지와 육체의 영역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한 인간의 존재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느낌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느낌에 따라 사고가 형성되며, 그 사고에 따라서 실천적인 행동이 따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홀리스틱한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신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을 통한 느낌의 개발과 이를 통한 자신만의 내면적 세계의 형성, 그리고 이 느낌에 의한 정신세계의 확충, 이에 의한 실천적 행동의 조화가 홀리스틱 인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슈타이너는 인간의 구조를 신체, 영혼 정신의 3중적 구조에서만 통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 3중적 구조의 형성이 어떤 원인과 질료에서 내원(來源)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인간구조의 4구성체’로 명명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4구성체, 즉 물질체(physical body), 에테르체(etheric body), 아스트랄체(astral body), 자아체(self body)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 4가지 구성체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존재하지만 각각 보호막으로 덮혀 있고 또한 각각 정해진 시기가 되어서 외부세계에 태어날 때까지는 이러한 보호막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4구성체 중 첫 번째는 물질체로 10개월 동안 태내에서 자라나 모체에서 탄생하고, 에테르체는 7살, 아스트랄체는 14살, 그리고 마지막 자아는 21살이 되어 탄생함으로써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며,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조용태·김성원, 2000: 1~27).

이렇게 인간의 3중적 구조와 4구성체는 슈타이너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구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타이너의 4구성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며, 홀리스틱한 인간이해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3) 소우주로서의 인간이해

슈타이너는 인간을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조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영혼, 정신이 우주에도 동일하게 편재되어 있으며, 우주에 함유되어 있는 신체, 영혼, 정신의 속성이 인간에게 육화(incarnation) 될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신체, 영혼, 정신이라고 생각하였다. 슈타이너는 인간과 우주에 편재된 이 세 가지는 ‘몸’의 네 가지 다른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교사가 어린이를 가르칠 때, 인간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시기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실행해야함을 의미한다.

에테르(ether)는 고대인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지구와 달, 우주에 가득한 신비로운 물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많은 행성과 별들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물질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기초물질은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전화(轉化), 혹은 육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에테르체를 우주와 인간, 사물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매개체(촉매제), 또는 물질적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에테르체 안에 사물과 우주를 만들어가는 자족적인 자기 전개(자기 전개)의 유기적 질서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에테르체에는 물질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모두 함유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물질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도 각각 나머지 우주의 속성체를 모두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자기변화의 내적 동인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을 아홉 가지로 세분하여 설명하

고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인간의 아홉 감각영역

신체의 구성 corporeal members	물질체 physical body	에테르체 etheric body	아스트랄체 astral body
영혼의 구성 soul members	감각혼 sentient soul	오성혼 intellectual soul	의식혼 consciousness soul
정신의 구성 spirit members	정신자신 spirit-self	생명정신 life-spirit	정신적 인간 spirit-man

출처 : Gilbert Childs(1991). Steiner Education, p.48

<표 5>에 나타나는 용어에서 혼동을 주는 것은 영혼에 속해 있는 감각혼과 오성혼, 의식혼의 구분이다. 감각혼은 인간에 있어서 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감각혼은 육체가 내보내는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단순 감정을 말한다. 요구와 혐오감, 충동적인 감정, 욕망과 본능적인 감정 등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또한 인간이 외부환경을 지각할 수 있는 것도 감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혼의 능력은 단순히 지각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의 다양한 행위, 행동을 유발하는 본능, 목적을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충동, 감각에 의해 형성되는 느낌과 감정은 바로 감각혼이 만들어 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성혼은 감각혼에 비해 다소 이성적인 역할을 한다. 즉 오성혼은 감각혼에 스며들어 생각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은 충동과 본능과 열정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Rudolf Steiner / 양역관 역, 2001: 21). 인간은 감각혼에 의해 지각

하고 본능, 충동, 감정, 욕구, 의지를 추구하지만, 인간은 감각혼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충동, 본능, 욕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는다. 인간은 생각하는 사고력을 활용하여 이성적으로 생활한다. 사물과 사태를 분별하는 사려와 지각, 이성은 모두 오성혼의 활동이다. 배고프다, 잠자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은 감각혼의 영역이지만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을 세워서 실행케 하는 것은 오성혼의 역할이다. 의식혼은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과 밝은 이해와 관계한다. 즉 본능과 욕구와 욕망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의식이라는 사고의 힘으로 인간은 개인적인 삶을 초월할 수 있다. 사고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과 일치함을 깨닫게 된다. 자신은 물론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의 내적 본성과 주변의 자연에 대한 진리를 깨치고 정신과 연결된다. 싫음과 좋음, 물건이나 사람을 향한 매혹과 혐오의 감정 등으로부터 벗어나 더 영구적인 가치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의식혼은 때로 선한 양심과 도덕, 진리를 구별하는 의식에 서 있기도 한다. 그래서 의식혼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 발견이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를 지각하는 것이나, 사태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가장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깨어있음’과 유사하다. 슈타이너는 의식혼을 ‘영’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영혼에서 빛을 발하는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식혼”이다. 즉 의식혼은 참 진리를 품고 있는 영의 일부분이다. 인간은 진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진리를 경청하며 받아들이기도 하고 진리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식이 어두운 사람은 진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교육은 감각혼을 일깨워서 오성혼을 불리일으키며, 더 나아가 의식혼을 각성시켜 절대정신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세 가지는 고도로 서로 스며있고 상호간에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의식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아를 의식(자의식, 또는 주체적 자기인식)하는 작용이다. 의식혼에 나타난 단어의 의식은 개인 자신이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혼을 충분히 성장시키고 활동시킬 때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아를 의식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삶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9가지 영역 중에서 신체의 구성은 물질체·에테르체·아스트랄체로, 영혼의 구성은 감각혼·오성혼·의식혼으로, 정신의 구성은 정신자신·생명정신·정신적 인간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슈타이너 사상의 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신체의 구성에서 자아체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물질체와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발전,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다른 항목의 경우도 동일하다. 즉 영혼도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감각혼·오성혼·의식혼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단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정신도 정신자신·생명정신·정신적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들 각 단계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발전,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이들 9가지 구성들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이루는 나머지 구성체들과 유기적인 작용과 발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질구성이 각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적 인식관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체 - 에테르체 - 아스트랄체 - 자아체가 결정적으로 분리된 고착형이 아니라 상호 변화하는 유동체로 인식하였다(Rudolf Steiner, 1965: 19). 그리고 각각의 속성에는 다른 속성으로 전변할 수 있는 내적 동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내적 동인(動因-변화, 움직임의 원인)을 그는 ‘자아의 본성(human nature)’이라고 하였다. 이 본성은 바로 ‘나(I-ego)’에서 나타난다. 자아체는 물질체에서 발원하였지만 자신의 본성을 자각한 자아체는 또 다시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 물질체를 통해 감성, 지성, 이성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에테르체는 중력의 법칙에 저항하여 밑에서 위로 뻗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번식이나 유전등과 같은

생명현상을 담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슈타이너는 에테르체가 물질과 정신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성, 감정, 영혼, 지각, 마음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스트랄체는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 하늘적 요소로 주로 인지학에서는 사변작용, 인식능력, 정신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아스트랄(alstral)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는 신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과 지각, 감각을 넘어선 우주의 본질적인 실체를 표상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신체에 나타난 감각에서 절대정신으로의 발전 분류표

물질체(physical body)	감각-느낌
에테르체(etheric body)	감성-감정-지각-사려-의지-마음
아스트랄체(astral body)	사변-인식능력
자아체(self body)	의식-이성-절대정신

자아체(self body)에서 자아는 주체적 자기 자각을 통한 ‘개체적 자기동일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아는 늘 이렇게 되묻는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러한 자의식은 세계를 알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고 슈타이너는 주장한다 (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b: 176). 자신에 대한 존재의 확인은 곧 외부 세계, 사물과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모든 이해(understanding)는 자기이해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슈타이너에 있어서 지식은 개인의 자기인식에서 출발하여 이제 대상과 세계,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포섭하는 자유로운 인식으로 확대된다.

## 2. 인간 발달의 일반원리

인간 성장 과정을 생물학적 발달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지발달심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프로이드식의 이드와 정신적인 관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따라 인간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의 범주에서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슈타이너가 인간의 발달과정을 일반 생물학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인간 성장 발달과정을 일반 생물학처럼 다루지 않는다. 일반생물학에서의 발달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보편적 현상과 법칙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인간 발달론을 살펴보면 슈타이너의 인간 발달론이 일반 생물학이나 인지발달심리학에서의 일반 법칙과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존재를 언제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전인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과 개성을 고려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 생물학이나 일반 인지발달심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발달론에 대한 접근은 슈타이너만의 독점적인 영역은 아니다. 이미 고대 희랍시대의 플라톤의 경우도 인간 발달론을 이야기 했고, 금세기 현대 과학의 영향으로 인지발달심리학에서도 인간 발달론을 연구하여 왔다.

본 장에서는 발달심리학에서의 인간 발달론에 특징과 슈타이너의 인간 발달론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의 인간 발달론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홀리스틱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발달심리학에서의 인간 발달론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Platon, BC 427 ~ BC 347)**은 전인 교육에 대해 최초로 주장한 철학자이며, 교육은 ‘전인적 존재’로 출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전인적 존재’란 덕을 지닌 사람을 뜻하며, 여기서 덕은 정신의 세 가지 측면(즉 욕망, 기개, 이성)사이에서의 조화로우움을 말한다. 그는 지혜에 의해서 높여지는

선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고, 최고의 덕은 이성의 부분을, 용기의 덕은 기개의 부분을, 절제의 덕은 욕망의 부분을 이 세 덕이 조화로움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전인적 존재인 정의의 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의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지혜, 용기, 절제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상적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데이아(paideia)에서 ‘전인적 존재’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Plato, 1980). 그는 무엇보다도 조화 있고 균형 잡힌, 전체적인 전인적 인간의 형성에 관심을 갖았다. 영혼과 육체의 여러 가지 힘들이 균형 잡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또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강한 영혼은 신체를 돌보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한다면 육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체육에만 치우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인 사고의 게으름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체육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 육체적인 것에 전념하는 사람은 정신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플라톤은 지혜(智慧), 용기(勇氣), 절제(節制)의 전인적 조화를 통해 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Plato, 1980). 이러한 플라톤 사상에서 인간 발달론을 구성하면 <표 7>과 같이 도표화 할 수 있다.

<표 7> 플라톤의 인간교육 발달단계론

세계의 구조	인간발달 연령	교육내용	교육목표
물질 및 감각적 세계 (doxa)	출생 ~ 17세	체육교육과 미적교육의 상호 보완적인 교육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토대를 위한 교육
자연(hylē)의 단계	18세 ~ 20세	체육교육과 일상적 삶의 훈련	강건한 신체와 정신력 배양, 그리고 삶에서의 일상적인 공부
형상(eidos)의 단계	21세 ~ 30세	산수·평면기하·점성술·음악이론 등의 예 비교과 학습	각 교과목의 본질과악과 사물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참다운 지혜 (epistēmē)의 세계	31세 ~ 50세	변증법 연구, 실제적 경험	사물이나 이데아의 본질성 파악, 인간과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움
이데아의 세계	50세 이후	선(善)의 이데아(Idea) 탐구	순차적으로 국가지도자가 되는 국민적 의무 수행능력 배양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톤은 신체교육과 미적교육을 통해 선(善)의 이데아(Idea)를 탐구하는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또한 인간발달의 근간은 독사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상승, 발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인간발달교육의 목적은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과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발달론에 대한 관심은 특히 프뢰벨(Friedrich W. A. Froebel, 1782 ~ 1852),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되었다.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뢰벨(Froebel, 1782~1852)**은 아이들의 자기활동·연속발전·사회화·노작(勞作)·체험 등, 그의 이론 모두가 유아의 신성에 관한 확신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유아교육의 실천면에서 구체(球體)·점·선·정육면체 등의 장난감을 사용하며 유희를 통하여 인간성을 배양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은 이 논문의 주제의 대상이 되는 슈타이너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프뢰벨의 교육원리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창조적인 자발 활동”의 원리이다. 프뢰벨은 인간의 본성을 신성(神性)으로 보고, 교육이란 이 신성을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분별한 인위적 속박을 배제하고 내부로부터의 “자기활동”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자기활동”이란 자기의 동기에 의하여 자신의 힘을 행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것은 “창조적인 자기활동”이 된다.

프뢰벨은 창조적인 자기활동을 중시하는 교육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는 놀이에서 자신의 힘을 전개시키고 자기의 내면세계를 알아가고, 놀이를 통하여 자기표현을 하며, 자기형성을 한다고 하였다(곽노의, 1990).

특히 그의 어린이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가족에 의지해 삶을 영위하고 가정은 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어머니는 온화하게, 아버지는 현명하게 자녀를 인도해야 한다. 이 시기는 보고 듣는 능력을 기르게 되므로 교육 활동은 주로 신체의 운동과 감각의 훈련이다. 유아기는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때이며, 언어로 자신의 내면감정을 표현하는 때이다. 어린이는 수동적이 아니라 창조적 존재이므로 자연적 성향에 의거해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시기는 자기 활동이 중요한데, 이는 어린이의 내적 본성을 확대한 것이므로 어린이 자신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 활동, 어린

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교육의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다.

프뢰벨은 유희를 자기표현의 가장 가치 있는 교육으로 생각하였고, 놀이와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아동교육에 있어 그들의 활동, 육구, 흥미에 의해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성장과 타율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 자발적인 계발을 중시했고 몸, 마음, 정신의 균형과 조화에서 기약되는 전인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 ~ 1952)는 홀리스틱 전인교육에 일조하였으며,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교육에 강력히 반대하고 어린이의 권리 존중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어린이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을 북돋우는 자유스러운 교육과, 어린이 하나하나의 활동 리듬에 알맞은 개성 발전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향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율성과 자발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자기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감각(感官)의 훈련이야말로 모든 정신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갖가지 놀이 도구를 고안하여 감각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몬테소리는 일상생활교육과 신체운동발달의 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상생활교육은 인간 생명을 돕는 운동기관을 발달시키기 위한 영역이며, 근육운동의 발달은 일상생활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주춧돌이 된다고 하였다. 근육은 신체의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신경순환계의 중심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훈련과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얻으며, 환경에서 질서를 찾아가고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도록 했다. 운동은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에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활동성이 결여된 일상생활은 병든 동물과 같다고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움직이려는 다양한 욕구를 생리적으로 가지므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어린이의 운동은 모든 지적학습에 의해 중요한 교육적 범위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생리적

인 교육에만 관련해서 운동을 고려하는데 운동은 지적인 것, 즉 정신적인 것과 관계되어서 재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의 신체조직은 세부분, 즉 대뇌, 감각,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육은 신경조직의 부분을 형성하고, 그것은 모든 자기 역할에서 주위환경과 더불어 상대적인 인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호조직이라고 한다. 생명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세계와 상호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이 없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 환경 그리고 개인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M. Montessori / 조성자 역, 1998: 182)고 하여 근육 발달의 중요성에 관해 주장하고 있다.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호흡이나 가장 훌륭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세계와 정신적 조화 또는 모든 생명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있다.

몬테소리는 근육은 육체의 특별한 부분의 창조물이며, 뼈와 골격은 근육을 지탱하는 목적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이 특성은 모든 것에 관계된다(M. Montessori / 조성자 역, 1998: 184)고 보았다.

신체, 운동의 발달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아동의 신체, 운동발달에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것은, 발달의 앞 단계는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는 것을 의미한다(사미경, 2005: 54 ~ 55).

**피아제(Jean Piaget, 1896 ~ 1980)**는 인지발달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자연과학, 철학, 발달심리학, 아동발달심리학을 개창하였다.

피아제는 그와 함께 활동하였던 볼드윈(Baldwin)의 아동의 사고가 ‘감각운동단계(sensorimotor)’, ‘준논리적 단계(quasi-logical)’, ‘논리적 단계(logical)’, ‘초논리적 단계(hyperlogical)’ 등의 4가지 보편적인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는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볼드윈은 새로운 경험이 기존에 형성된 사고 형태에 동화(assimilated)된다고 믿었다. 또한 하나의 사고 형태에서 다음 단

계로의 전환은 기존의 도식이 깨어지고 ‘조절(accommodat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고 형태는 새로운 적응적 패턴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아제는 볼드윈 이론에 ‘논리적 구조(logical structure)’라는 개념을 더 부가하여 인지발달심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Case, R, 1987: 571~607). 논리적 구조는 논리적 조작의 응집체로서 인간 활동의 어떤 영역, 어떠한 인지과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피아제는 인간의 조작적 구조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며, 각 단계에서의 사고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피아제는 ‘조정(accommodation)’의 과정, 즉 낮은 수준의 조작적 구조에서 높은 수준의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발달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인지발달이 연령의 신체구조와 생리의 변화에 따라 발달이 수반된다고 일반적 인지발달모형을 제시하였다.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는 <표 8>과 같다.

<표 8> 피아제 인지발달단계

피아제 발달단계	연령	특징
감각운동기	출생 ~ 2세	손가락 빨기 → 호기심 발동 → 모방시작 → 사고가 시작
전조작기	2세 ~ 7세	다양한 언어활동 → 신체활동 참여 → 직관적 사고 → 정신의 상징화 → 의미 형성
구체적 조작기	7세 ~ 11세	언어의 반복 사용 → 개념화시작 → 개인적 독백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호관련성 추측 → 사물의 인지태도 → 관계론 형성 → 도덕성 형성(사실과 거짓 인지, 자기중심성과 협력) → 사고의 혼합과 병렬, 서열관계 형성
형식적 조작기	11세 ~ 18세	사물관찰 → 명제논리의 상호포함관계(충분조건과 필요조건) → 객관과 종합 도출 → 이항조작

피아제의 주요 관점은 첫째, 청소년기의 사고가 이전의 사고 형식보다 더 추상적이라는 것과 둘째, 추상화의 과정은 더 낮은 수준인 두 체제의 통합(조정화)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체제를 구성한다(평형화)는 점을 제시한 데 있다. 즉 그는 인간인지발달과정을 생물학과 수학을 결합한 정보처리적 접근방법을 결합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인지구조의 발달양상과 정신적 처리과정의 복잡성을 분석해내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인지발달심리학에서 객관적 지표의 기준설정이 부재하였는데 피아제에 이르러 비로소 인지발달심리에 나타나는 사고의 추상성과 복잡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Fischer, K. W, 1980).

발달심리학에서의 인간 발달론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발달의 패턴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분화(diffe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동작에서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지속적인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다. 즉 전체적인 큰 동작에서 작고 특수한 동작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는 다시 새롭고 복잡한 체제로 통합이 된다. 예를 들면 유아기의 운동발달 수준에서 성인수준이 될 때까지 처음에 몸 전체를 움직여서 물건을 잡는 단계에서 몸에서 팔과 손의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하고 다시 각각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어 새로운 하나의 운동기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김기웅외 2인, 1994: 29).

둘째,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개인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발달과정 중 연속성의 원리에 따라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속도는 시기와 신체 각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장의 성장은 유아기에 빠른 성장을 보인 이후 아동기 때는 불연속적 현상으로 알려져 비교적 느린 발달기간이 계속되어 성장의 속도가 저하되고 사춘기에 다시 급성장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다. 개인차는 소속한 문화 생활환경이나 선천적인 영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은 강한 개인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소속한 문화에 따라 아동의 성장에 있어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어린 아동의 운동기술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적인 발달원리가 모든 인간에 적용이 되지만 개인에 따라 발달시기가 다르고 발달의 양이나 질적인 차원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발달의 속도나 질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는 각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선천적인 영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남녀의 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발달에는 결정시기(crystal period)가 있다. 이 결정시기는 주로 태내기와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데 이 때 형성된 인지적 특성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다.

다섯째,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연관이 되어 있다. 한 영역의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에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유아기의 신체능력이 증진됨에 따라서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김기웅외 2인, 1994: 33~34).

### III. 슈타이너의 발달단계와 신체교육

발달심리학에서는 유아기 신체구조의 발달특징을 두부 부분이 가장 먼저 발달한 다음 사지방향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신체 중심부는 2.6~5세 정도에 크게 발달하는데 이는 성장이 머리에서 발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출생 시 다리 부분보다는 머리 부분에서 신경운동 조직이 더 성숙하며 팔의 기능이 다리기능보다 더 정교하게 발달한다(김기웅외 2인, 1994: 30). 그리고 사지가 자라나는 시기는 5~7세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 시기는 내적인 자아가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때 젓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생기는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 치아의 발달은 동물의 생존본능과 발달사를 함축하고 있다. 치아는 생존본능과 직결되어 있다. 모든 동물은 치아의 변화가 없는데, 왜 유독 인간만이 젓니를 갈아 영구치로 바뀌는 것일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내적 자아가 없다. 젓니가 빠지고 새로운 영구치가 생긴다는 의미는 자기 본연의 내적 자아와 세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슈타이너 신체적 인간 발달론에 나타난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초로, 슈타이너가 신체교육에는 어떻게 이를 접목하고 실행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물질체 발달기 : 0~7세

이 시기는 신체와 영혼, 정신이 아직 자각하지 않은 미분화의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 요소, 즉 감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시기이다.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인간 발달론은 감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감각은 어린 영아에게만 특별히 발달된 것이다. 이 감각에서 주어지는 느낌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감성과 감정이 생기며, 이 감성과 감정은 지각과 인지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습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습관은 오랜 반복의 결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성장 후 그 사람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 지각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슈타이너가 말한 인간발달론 제1기인 영아에게 있어서 감각은 외부세계로 열려 있다(Gilbert Childs, 1991: 90). 이때는 생명체가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유아의 영혼과 정신이 아직 내적인 자의식에 이르지 않은 미분화의 단계이다. 이 때 유아의 의식은 주변 환경에 대해 감각을 통해 인상을 받게 된다. 이 인상은 지극히 신체 감각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감각의 느낌에 따라 감정이 형성하게 된다. 감각은 동물의 생존 본능에 기초한다. 감각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외재적 환경과의 ‘차이’를 느끼고 구별하는 것에서 ‘자기 동일성’(생명종속의 연장본능)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 동일성’과 ‘차이’는 감각이 지니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습관과 관성의 법칙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하는 감각의 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Gilbert Childs, 1991: 106). 감정과 정서는 감각에서 나온다(Georg W. Hegel, 2006: 209~210). 뜨거움, 차가움, 따뜻함, 서늘함의 감각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계한다. 분노와 슬픔, 기쁨과 즐거움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한 신경전달물질과 상관성을 가진다. 또한 뜨거움, 차가움, 따뜻함, 서늘함의 감각적 느낌은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형성한다. 의식은 감각과 느낌, 정서와 감정, 이에 기초한 외부 환경의 차이와 구별, 인지능력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슈타이너는 신체적 감각에 의한 인상에 의해 유아는 모방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Gilbert Childs, 1991: 89~90).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는 기쁨, 슬픔, 아픔의 감정은 인체의 내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혈관에서의 분비와 호흡기관의 활동의 가속과 자연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는 감정 활동과 호흡, 혈액순환조직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감정 활동이 곧

지각과 감각에서 기원한다는 그의 인지학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0~7세의 어린이의 감성은 음악적 체험을 통해 내적 평화와 안정, 기쁨과 행복을 통해 어린이의 홀리스틱한 존재로 영글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음악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가며 이는 청각에 의한 지각과 리듬적인 호흡과정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특히 0세 이후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의 수업은 리듬, 예술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7~14세까지의 아이들은 예술적인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0~7세의 음악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더불어 이 때 어른은 어린이의 직접적인 모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유아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강상희, 1993: 33). 이 시기의 유아는 교사의 내적 유대 관계 속에서 교사의 행위와 존재를 신체로 느낌으로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사물을 감각하는 바에 따라 느낌이 전달된다. 그리고 그 느낌에 의해 감정과 정서가 형성된다. 감각과 느낌, 감정과 정서는 지각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시기의 교육은 감각을 발달할 수 있는 청각, 즉 음악교육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 2. 자아형성기 : 7~14세

7세 이전까지 완전하게 분화되지 못한 신체와 영혼, 정신이 이제 각각의 독립된 자아의식을 지니며, 빠른 속도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감각에서 시작된 감성과 감정의 ‘느낌(feeling)’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아는 자기중심적인 인식의 발달을 의미한다. 특

히 2단계에서 자아의 형성은 주로 감성과 감정의 활성화와 관계한다. 이때 형성된 감성과 감정은 한 개인의 성향과 기질, 의식, 성격, 기억,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7~14세의 시기는 치아를 갈고 나서부터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까지인데, 이 때 어린이의 신체 조직 내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것은 가슴체계이다. 이는 리듬조직, 즉 주로 호흡조직인데, 여기에서 감정(resonance)과 연민(antipathy), 느끼기(feeling), 꿈꾸는 의식(dreaming consciousness)이 왕성하게 영근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어린이는 성장과정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는 때이다. 그 이유는 14세 이후로 전개되는 자유로운 본성을 준비하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약동하고자하는 욕구가 7~14세 어린이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어린이의 감성은 우주의 감성과 리듬에 일치한다. 음악, 미술, 몸동작, 연극, 무용으로 구성된 오이리트미의 세계는 이제 대상으로서 시연하는 예술이 아니다. 이것을 시연하는 어린이의 신체와 영혼, 정신은 오이리트미 그 자체가 된다. 이때의 어린이의 감성은 외부세계와 그냥 하나가 된다. 나무아래서 떨어지는 낙엽이 그냥 낙엽이 아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다. 낙엽과 강물은 이제 어린이의 감성을 물들이며 그 감성과 하나가 된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이 시기의 어린이는 감성적이며, 우주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주의 리듬과 상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인간의 존재를 단순히 감각적인 기계론적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홀리스틱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슈타이너는 감각적 느낌에 의해 감정과 감성이 발달하고, 이에 기초가 되어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형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행동방식이 결정되어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기질과 성품,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슈타이너는 느낌에 따라 정서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감각에 대한 느낌은 기본적으로 온도와 관계한다. 따뜻하다(온), 뜨겁다(열), 서늘하다(량), 차갑다(한)

는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항상적 체온의 상대적 느낌에서 나온다. 자신의 체온에서 벗어나면 안 좋은 느낌이 들지만 자신의 체온과 상응성을 이루면 좋은 느낌이 든다. 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은 7세 이전의 감각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는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 감각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늘 강조하여 왔다.

사람은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지각과 행동의 일관성은 결국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습관은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혹은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격, 기질, 혹은 개성은 한 개인의 고유 정신이나 성품, 인지체계나 행위방식의 특성, 자율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유아기 교육에 있어서 신체적 감각(오감)을 통한 정서함양과 인지체계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유아의 감각은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감성과 감정을 통해 자신의 자유의지의 영역인 실천 감정을 확대해나간다. 실천적 감정에서는 자아가 추구하고자하는 이상적인 것과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생기는 일치와 불일치에서 '쾌'와 '불쾌'의 감정이 나타난다. 이 두 감정을 더욱 분화시키면, 만족·기쁨·슬픔·고통·노여움·희망·공포·불안·안심·놀람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하는 자유의지가 발동하게 되며, 또 한편으로는 수치와 후회의 감정이 생긴다. 자유의지는 만족, 기쁨, 희망에서 발원하며, 수치와 후회는 슬픔과 고통, 노여움, 공포, 불안에서 생긴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이러한 모든 감정의 유형들이 전인적 존재를 형성하는 계기로 보며 자유의지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본다(Gilbert Childs, 1991: 48). 제1기 감각에서 시작된 감성과 감각이 제2기의 자아형성과 제3기의 인지능력과 사고(이성), 정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를 도식화 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인간 인지능력의 발달단계

감각 → 느낌 → 감정·감성형성 → 지각형성 → 행동 → 반복적 행동(습관) → 기질·성품 형성 → **인지능력의 체계화·자율의지, 사고와 사변능력의 잠재성 형성**

### 3. 사고발달의 시기 : 14 ~ 21세

3단계는 제2기에서 형성된 자아중심의 주관적인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사태와 사건을 파악하는 인지능력의 확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된 발달은 이성의 추상적인 사고와 객관 세계(대상)에 대한 변증법적인 사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는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세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통합의 단계이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 시기를 절대적 자유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의 시기라고 말한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115). 여기서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은 곧 ‘인간다움(자신다움)’의 주체적 발견을 말한다. 이 때 ‘인간다움(자신다움)’은 개별 존재로서 신체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신체에 거주하는 영혼은 우주적인 감성과 상상력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고, 정신은 세계와 나, 자신과 우주의 변증법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우주와 합일적 존재로 인식하는 ‘홀리스틱(holistic)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Rudolf Steiner, 1971: 4). 슈타이너의 인간 발달론 제1기의 특징인 신체적 감각으로서의 인간은 ‘인간다움(자신다움)’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감각적인 느낌에 의해 이 세계를 이해하는 초보적인 감정과 느낌의 체계만을 형성하는 단계일 뿐이다. 그러나 제1기의 신체적

감각의 에테르체에서 형성하게 된 감정으로서의 영혼은 제2기의 인간 발달론에서 중요한 인격형성의 원인이 된다. 제2기에서 형성된 감정으로서의 영혼은 자기중심적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지만 이 시기는 여전히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그러나 제2기에서 형성된 자아 중심적 영혼은 제3기의 ‘자유로운 자아본성’으로 확장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드디어 제3기에 들어서면, 감각과 느낌의 감정으로서의 영혼은 드디어 ‘주체적 자아인식’에 접어든다. ‘주체적 자아인식’은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을 말한다. 이는 곧 자신과 세계가 합일되는 홀리스틱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1기 신체의 감각에서 시작된 미분화된 자아(수면상태)는 제2기 감정으로서의 영혼(꿈꾸는 상태)으로 발전하고, 꿈꾸는 영혼은 다시 제3기에 이르러 절대 자유정신인 ‘자유로운 자아본성(깨어 있는 의식)’의 상태로 발전한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자아가 신체와 영혼, 정신에서 성장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반대로) 신체와 영혼, 정신이 자아에 의해 수면상태, 꿈꾸는 상태에서 절대 자유의 정신으로 깨어난다고 하였다(Rudolf Steiner, 1971: 41). 이 의미는 자아가 신체·영혼·정신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반대로 부모도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로서 깨닫고 다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슈타이너 신체발달 형성의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의식과 신체·영혼·정신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도표화 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슈타이너의 신체발달 형성의 과정

구분	신체의 표현	영혼의 표현	정신의 표현
두뇌체계 head system	신경/감각체계 nerves/senses system	사고하기 thinking	깨어있는 의식 waking consciousness
가슴체계 chest system	심장/폐의 체계 (호흡, 혈액순환, 리듬체계) heart/lungs system	감정 sympathy (연민 antipathy), (느끼기 feeling)	꿈꾸는 의식 dreaming consciousness
사지(四肢)체계 limbs system	신진대사 metabolic/limbs system	의지하기 willing	수면상태의 의식 sleeping consciousness

인간의 신체 그 자체는 이제까지 의학, 생리학을 시작으로 모든 과학적 학문의 고찰의 대상이 되고 해명되어 왔다. 모든 과학적 학문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물질과 질료적인 차원에서 규명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슈타이너에 의하면 신체는 자연과학적 입장만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자연과학적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생리학적 자연과학적인 고찰은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그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신체는 복잡한 통일체(nebulose einheit)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기체로서의 신체와 영혼, 정신활동과의 관계인데 전자가 후자의 동력원이 되는 입장에서 신경조직이 감정, 의지와 관계하여 영혼과 정신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지학에 기초하여 인간 발달의 형성과정을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 첫째가 신경, 감각체계이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의 모든 감각은 외계를 지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감각은 여러 신경이 접촉되어

있고, 지각은 이 감각, 신경이 일체가 되어서 생기는 것이다. 둘째는 호흡, 혈액순환체계인데 이들 체계의 특징은 리듬(rhythm)이 풍부한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것들을 ‘리듬조직’이라고 부른다. 림프관 조직도 리듬성을 갖고 있으므로 호흡, 혈액순환 조직의 부분에 속해진다. 셋째는 신체활동의 에너지와 열을 만들어 방출하는데 연관된 조직 및 체내의 노폐물 배출에 연관된 조직 즉 신진대사 조직이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신체는 대체로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각각은 상호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신경·감각체계’, ‘호흡·혈액순환체계’, ‘신진대사체계’는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생명을 지배하는 생명혼에 깊게 관계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신경·감각체계’는 영혼과 정신의 사고하기와 깨어있는 의식에 관련이 있으며, ‘호흡·혈액순환체계’는 감정과 꿈꾸는 의식에 관계하며, ‘신진대사체계’는 영혼과 정신에 있어서 의지와 수면상태의 의식과 관계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신진대사 체계는 감정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신경·감각조직은 인간의 표상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표상활동은 지적인 사고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신체의 각 조직체계가 감정과 의지, 사고,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역으로 감정과 의지, 사고와 의식이 신체의 각 조직체계를 더 발달 성장시킨다고 보았다.

0~14세까지의 교육과정은 감각기의 발달을 통해 정서와 인격, 자유로운 의지와 감성을 발달하는 동인(動因)이 되었다면, 14~21세에 속하는 시기는 7~14세에 형성된 감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 혹은 자유로운 자아와 이성으로의 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각 시기는 자유로운 정신과 의지를 발현시켰던 감각기관을 자유로운 정신과 이성의 통제와 절제 속에 자신의 신체를 규율할 수 있는 주체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슈타이너가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인 관

점에서만 파악하는 자연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태도, 즉 인간으로서 구성된 신체의 질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영혼적이고 보다 정신적인 인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슈타이너는 신체구성과 관련한 영혼과 정신의 상관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사고, 의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12감각의 유기적 발달을 위한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연령별 신체 발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슈타이너 신체적 발달론에 수반된 교육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슈타이너 12감각기관의 역할은 <표 11>과 같다.

<표 11> 슈타이너 12감각기관의 역할

육체감각	촉각	외부와 나의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감각으로, 감각을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감각이다.
	생명감각	인간의 생명활동을 감시하는 감각으로 신체적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기쁨과 슬픔, 아픔을 통해 몸의 상태를 알려준다. 증후는 몸을 회복하고자하는 몸의 이성이다.
	고유운동감각	인간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신체에 자신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감각기관이다.
	균형감각	자신을 인식함과 동시에 주변세계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감각으로 자아의 의식과 타자의 인식을 동반하도록 만들어 준다.
영혼감각	후각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라는 자극으로부터 좋고 나쁨 등의 선악의 판단을 유도하는 감각기관이다.
	미각	촉각, 열감각 등의 다른 감각과 조화를 이루며 반응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섭취하는 생명기관으로 생식의 본능이 모여 있는 기관이다.
	시각	항상 열려있는 감각기관으로 고유운동감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은 사고를 작용하는데 특히 하늘의 영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열 감각	새로운 외부세계의 자극을 경험하는 감각으로, 자신의 체온을 유지, 보호하는 항상성의 감각이다.
정신감각	청각	외부세계의 자극을 세포 깊숙이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외부세계와 사물의 근원적 본질을 파악하는 감각기관이다.
	언어감각	자신과 타인이 상호 의사소통하는 기관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기관이면서 세계와 사물의 본질을 교환하고 확장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사고감각	생명감각과 대비되는 감각기관으로, 언어를 초월한 고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의식을 우주로 확대하는 감각기관이다.
	자아감각	지금 바로 여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이며 세계와 자신을 구별하면서 통합하는 절대정신의 감각이다.

출처: 알베르트 수스만 / 서영숙 역, 2007:15 ~ 290

## 4. 신체적 발달론에 수반된 교육

### 1) 슈타이너의 신체관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신체는 자연적 속성이었다. 신체는 자연(ether)에서 생성되었다. 그리고 신체는 자연적 사물을 접촉하여 감각을 형성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과 사고가 형성되어진다. 슈타이너는 인간이 이러한 신체의 감각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신은 신체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신체는 정신의 활동에 의해서 비로소 조화로운 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269). 그는 신체와 정신적, 감성과 영적인 힘의 연관성을 항상 강조하였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260). 이는 신체와 정신, 감성, 영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신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 감성적 활동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Rudolf Steiner, 1972b: 177). 따라서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사고만을 강요하면 안 된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신체 훈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실에서의 주지주의적 교육은 자칫 어린이의 감각과 신체를 피로하게 할 수 있다. 오늘 한국교육의 현실은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경쟁구도로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 신체는 불균형을 이루어 학생들의 삶은 핍폐(乏廢)될 대로 핍폐된 상태이다. 감성교육과 신체교육을 방기한 채, 개념의 주지주의적 암기와 사고력 훈련은 기형적인 인성만을 양산할 뿐이다. 더구나 컴퓨터상에서의 게임은 신체훈련의 개념화 연장으로 살아있는 신체 생명이 탈락된 채 박제화가 된 인간의 영혼만을 양산하는 게 오늘 한국 어린이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슈타이너가 제기한 신체와 감성, 감정, 정신을 동원한 노작훈련은 전인존재를 육성하는 좋은 모델이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고하는 인식, 감성과 의지가 어디에도 순수하게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세 부분이 상호 밀접하게 합일되어서 작용합니다. 신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반적인 본성이 이런 상태입니다. 인간은 머리 부분에서 주로 정신을 담당하지만 사실은 인간 전체가 정신임을 암시했습니다. 가슴 부분에서 인간은 주로 영혼이지만 사실은 인간 전체가 영혼입니다. 머리(정신)도 가슴(영혼)의 성격을 한 부분으로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사지(신체)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지 역시 (삼지성에서는) 사지를 주로 신체성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전체 인간이 사지(신체)로 역시 머리(정신)와 가슴(영혼)의 성질을 한 부분으로 지니고 있습니다(Rudolf Steiner, 2007a: 177).

여기서 슈타이너는 머리, 가슴, 사지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부분이 다른 부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 전체가 바로 머리이며, 가슴이고 사지라고 말하면서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으로 이어져 있어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체교육의 하나인 노작교육은 단순히 신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 그리고 정신을 함양하는데 더 없이 좋은 매개임을 밝힌 것이다. 정신과 사고력 훈련은 머리가 맡고 있지만, 정신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면 머리는 가슴과 사지의 생리적 메커니즘이 나타내는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체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성을 훈련하는데 있지 않고 영혼과 정신의 조화로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형성해나가는 데 있다(Rudolf Steiner, 1981: 75~76).

나는 발도르프학교의 노작활동 시간에 책 제본 및 상자 만들기 등의 수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는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요소들이다. 책 제본과 상자 만들기 등의 작업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물건을 생산해 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노작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고유의 감성들을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Rudolf Steiner, 1988: 164).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신체교육은 근육의 단련이나 특정 운동종목에 있어 대단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손과 발의 감각적 촉각의 자극을 통해 가슴체계의 감성과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고력과 정신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전인적 존재로서의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슈타이너에 있어서 신체교육의 목표는 아동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깨우는 것이기도 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영혼과 정신은 ‘감각의 깨어남’에서 비롯된다. 깨어나지 않는 감각은 단순히 동물적인 감각의 의미밖에 지니지 않는다. 슈타이너가 인간의 감각이 동물의 감각과 다르다고 본 것은 인간의 감각에는 영혼과 정신으로 거듭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 인간의 감각이 영혼과 정신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감각은 단지 동물적인 감각일 뿐이다. 그는 신체적 훈련을 통해 영혼과 정신으로 깨어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감촉되어지는 감각이 어린이의 자아의 존재성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그는 교사가 어린이에게 신체훈련을 시키면서 어린아이의 감각에 내재한 영혼과 정신성을 깨우지 않고, 그 감각이 어린이의 영혼과 정신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각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만 시행한다면 이는 동물을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다위니즘’<sup>7)</sup>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그의 말을 직접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7) ‘다위니즘’(darwinism)은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을 바탕으로 하는 생물 진화론, 혹은 다윈주의를 말한다.

인간이 무의미하게 활동한다함은 그 활동이 단지 자신의 신체가 요구하는 만큼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활동한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신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영혼과 정신)이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서 우리는 이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외적인 신체활동을 그저 신체적인 것에 치중하는 물리적 체조 쪽으로 치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어린이의 외적인 신체훈련을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유도해서 그 움직임이 정신 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향하는 방향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중략) 신체적 훈련인 체조를 단지 신체만 따르는 무의미한 활동으로 만드는 것은 물질시대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저 무의미한 움직임이나 신체의 발달만을 가속화시켜 스포츠로까지 고양시키고자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사고하게 할뿐만 아니라 동물적으로 느끼는 인간으로까지 타락시키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나친 스포츠 활동은 실질적인 다위니즘입니다. 이론적인 다위니즘은 인간이 동물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다위니즘은 스포츠이며, 인간을 동물로 회귀시키기 위해 신체적 훈련만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271 ~ 272).

여기서 슈타이너는 감성과 감정, 사고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신체적 훈련이나 극도의 신체적 기술훈련을 요구하는 스포츠는 모두 다위니즘이라고 못을 박는다.

인지학에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신체훈련은 영혼과 정신의 조화를 위한 감각발달을 위한 훈련으로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이를 ‘공작(工作)교육’이라고 표현한다.<sup>8)</sup> 공작 교육을 통한 어린이의 감각은 내면의 세계가 외부 세계, 즉 자신을 감싸고 있는 환경과 소통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는 새로운 인식이 확장하게 된다. 슈타이너는 인간 인식의 확장이 독

---

8) 전일균(1996b)은 슈타이너의 ‘공작교육’을 ‘노작교육’이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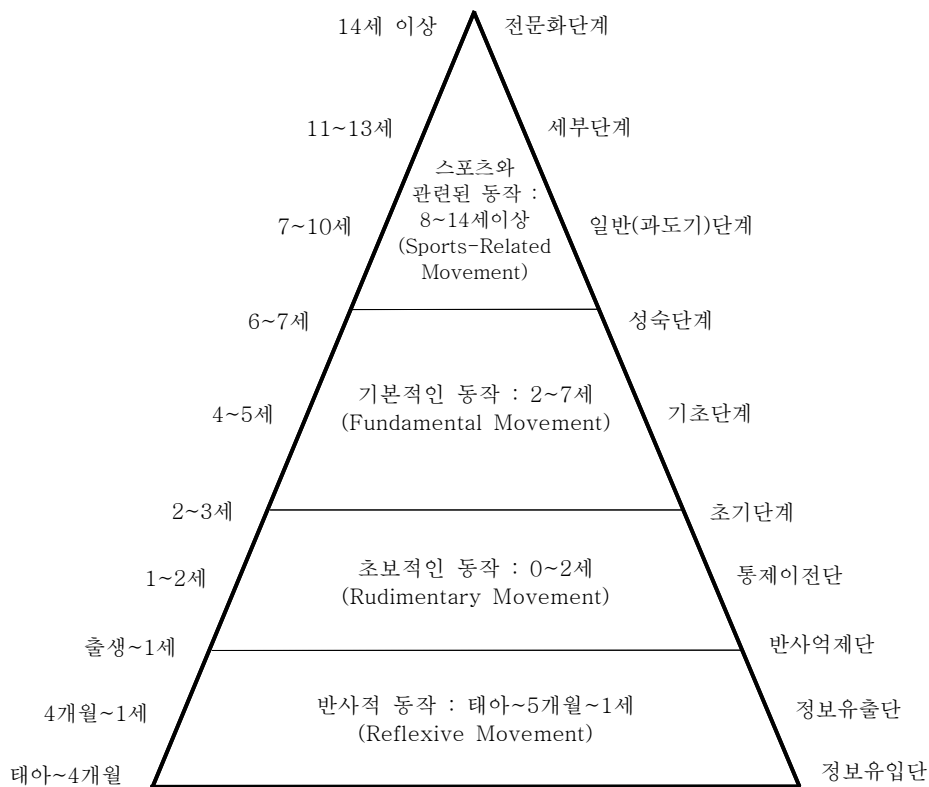
립된 정신의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인 감성과 감정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발원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발원은 감각의 느낌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감각과 촉각은 인간이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Rudolf Steiner / 최혜경 역, 2007a: 178).

특히 실제적이고 폭넓은 공작(노작)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든 방면의 생활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 활동을 갖게 되며, 신체적 활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수공 기술 속에서 정확성, 인내력, 자발성 등의 기질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전일균, 1996b: 231).

슈타이너의 신체교육의 특성은 일상적 삶으로의 구체적 실천에 있었다. 그 실천은 다름 아닌 자연과 우주, 인간과 대 사회 관계에 있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존재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신체는 더 이상 플라톤이 거부한 물질적 부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인지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성과 감정, 이성과 사변이 생물학적 발달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인식했던 신체는 영혼과 정신 의식이 잠재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인식한 신체는 인지발달심리학의 생물학적 도식의 발달구조를 뛰어 넘어, 전인적 존재로 거듭 나게 하는 생명의 내적동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슈타이너의 0~7세의 신체감각 기르기 교육은 현대 인지발달심리학에서 제기한 아동의 감각기관의 자극과 인지능력발달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슈타이너의 신체감각훈련인 노작훈련이 어린이 감성과 사고력 개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입증이 된다. 특히 유아기는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근섬유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근섬유가 발달하면 근육이 발달하여 근력을 강하게 하여 감각기능과 운동신경이 발달하게 된다.

갈라휴(Gallahue)가 제시한 운동발달 단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운동발달의 단계(Gallahue, 1982)

연령에 따르면, 최초로 나타나는 반사적 움직임은 점차적으로 조절되어 불완전한 초보적인 동작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초보적인 운동능력은 출생 직후부터 약 2세까지 발달하며 이 단계에서 기어가기, 서툰 걸음걸이, 목이나 머리 가누기, 앉기, 서기, 잡기, 손 뻗치기, 물건을 잡고 놓기 등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갈라휴가 제시한 연령별 운동발달 단계의 세 번째 단계는 기초적인 움직임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움직임 교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유아가 3세가 되면 신체의 움직임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유연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유아는 자신의 의도대로 동작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때부터 감각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와 교감을 하며 인지능력과 감성, 감정, 사고, 자아가 형성되어간다. 이 처럼 유아의 운동능력은 신체의 감각기관의 발달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김기웅·곽은정 공저, 1998: 45~47).

그러나 일반발달생물학에서의 문제점은 이들 운동발달과정에서 영혼과 정신으로 발달하는 구체적 발달단계의 매개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이들이 제시한 운동능력의 발달과정은 생물학에서의 동물 발달단계를 제시한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이들 유아기의 운동발달능력을 단순히 신체의 운동능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들 감각의 능력에서 영혼과 정신의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충실하게 제시하며 그에 따른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일반 발달생물학과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슈타이너의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2)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른 교육

슈타이너 연령별 신체발달에 따른 교육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교육프로그램 안에 사고하는 것(thinking), 느끼는 것(feeling), 의지를 북돋는 것(willing)이 항상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는 정신적 작용이며, 느끼는 영혼의 감성적 작용이고, 의지는 신체에서 나타나는 작용이다. 따라서 슈타이너의 모든 교육내용에는 신체와 영혼, 정신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교육 내용에 사고(thinking), 느낌(feeling), 의지(willing)를 자극하는 비주얼(visual)교육, 음악교육, 공작(tactile)교육이 제1기의 영아교육에서부터 제3기의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 주제 안에 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다(Freda Easton, 1997: 89). 그러면서 각 단계마다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언어와 역사교육은 꼬리말 잇기와 전래 동화, 구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실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제1기 - 물질체 발달기 : 0~7세

슈타이너는 신체의 발달기인 제1기는 무엇보다도 감각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시기의 유아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즉 감각이 세계에 열려있는 것이다. 특히 이때는 시각보다 청각, 소리 감각의 발달이 인성형성에 보다 조화로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음악적 요소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유아의 특징은 감각을 통해 이해한 것을 주변의 외부적 사물의 속성이나 사람에게서 모방을 하는 습관이 형성된다. 습관은 동일한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며, 이것이 계속 반복, 고착화되면 유아의 인지체계(지각)가 형성하게 된다.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 형성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성과 개성을 결정짓는 시기이다. 습관에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듯이 이 시기의 감각의 발달과 사물의 호오(好惡)의 느낌에 따라 반복되는 모방이 습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0~7세 어린이의 미숙한 신체는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 때 감각의 느낌에 의해 형성된 자아는 후에 습관, 기억, 개성, 기질, 사고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제1기인 0~7세 어린아이의 교육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이때는 감각이 외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어린이는 모방을 잘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감각에 의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때이기도 하다. 이 상상력은 곧 사물을 받아들이고 개념화하는 표상능력과 기억능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수업내용의 회화적 묘사와 형성이 중요한 수업의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자신들의 고유한 정신과 감정세계에 연결시켜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정신의 단련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물질적 재료를 예술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감각을 자극시켜 무한한 상상과 느낌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는 감성과 감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상상력과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의욕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는 단순히 감정을 자극시키는 교육보다는 어린아이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의욕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키면서도 세계와 나, 그리고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생각할 줄 아는 ‘관계론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감성·감정교육을 고려해야 한다(Freda Easton, 1997: 87).

특히 제1기의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음악은 전인적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슈타이너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의 수업시간에 음악이 항상 동반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숙해지면서 내면을 성장시켜 나간다. 음악은 내면의 성장과 영혼을 기름지게 한다. 슈타이너는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습관을 고려하여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어린아이의 기질과 악기가 잘 조화 되어 합일될 때 그의 영혼이 온전하게 영글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유아에게 추상적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쓰기, 읽기, 셈하기 등을 시키는 것은 감각적 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이때는 이러한 교육보다는 감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음악은 청각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유아에게 있어서 온 몸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고 감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슈타이너는 발도르프학교 교육에서나 오이리트미 예술교육에서 언제나 ‘소리’의 울림이 분리되고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Gilbert Childs, 1991: 72). 소리는 사물의 성질이나 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요소이다. 눈의 감각은 사물의 표면만을 지각할 뿐, 내부를 지각하지 않는다. 미각과 후각은 사물의 내부나 외부로 지시하는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촉각은 도움을 주지만, 내부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를 부분적으로 파괴해 버린다. 그러나 청각은 내부에 손을 대는 일 없이 내부를 감지할 수 있다. 상자를 두드리면 속이 텅 비어있는지, 꽉 차있는지 알 수 있다. 소리가 나는 것은 무엇이든 소리를 통해 그 내부 구조를 감지할 있다. 색스폰 소리와 플루트 소리가 다른 것은 악기의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목소리는 인간 몸의 내부에서 나온다. 인간의 몸이 목소리의 공명체를 이루는 것이다. 시각은 인간의 존재구성인 신체와 영혼, 정신을 분리하는 성격이 있지만 청각은 오히려 이들을 통합한다. 시각에서는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대상의 외측에 그리고 그 대상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해서 소리는 듣는 사람의 내부로 쏠려 들어간다. 시각은 사물을 토막 내어 감지한다. 시각은 인간에게 한 때, 한 방향으로만 감지한다. 그러나 청각은 동시에 그리고 순간에 모든 방향으로 소리가 모여 온다. 이렇듯 시각은 토막 나는 감각임에 반해서 소리는 통합하는 감각이다. 예를 들면 어른들은 눈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는 작용을 하지만 유아들은 몸 전체를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이것을 가리켜 유아의 신체는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a great sense of organ)’같다고 말한다(Rudolf Steiner, 1972a: 77~78). 이시기를 피아제(Piaget)는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는 문제해결기술의 발달, 모방의 시작,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고, 또한 전 개념적(pre conceptuality) 사고의 단계, 직관적 사고의 단계 등으로 보고 있다(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r / 김정민 역, 2006: 48~60).

따라서 슈타이너 교육의 제1기인 0~7세에 있어서 음악 교육은 단순히 음악 교육이기 전에, 한 영혼이 음악적 감성개발을 통해 사물들의 작용과 소리 울림, 떨림, 섬세한 느낌과 미묘한 뉘앙스를 변별하여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슈타이너교육에 있어서 음악은 자신과 사물, 세계, 사람을 이해하고 우주와 함께 합일되고, 교섭하는 능력을 일깨우는 매개가 된다.

## ② 제2기 - 자아형성기 : 7~14세

7~14세 사이에는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시기이다. 이 때는 감성과 감정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이 시기는 사춘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술과 기술, 상상력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6학년 교과에 있는 로마제국을 공부할 때, 시저의 생애를 묘사하는 연극을 쓰고, 무대장치와 의상을 만들어 교내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습주제에 대하여 학생 각자가 설계하고, 설명하여 학생스스로의 교과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학생의 감성적 상상력을 올리는데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 예술과 기술 교육에는 밀랍, 나무, 진흙, 털실, 야채, 물감, 염료 등과 같은 자연적 재료들이 주로 사용된다. 학교 건축과 내부설계는 유기적 곡선형과 자연적인 건축자재, 그리고 자연의 색이 선호된다. 어린이의 육체와 영혼은 그가 만지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의하여 깊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모든 소재와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Freda Easton, 1997: 89).

특히 이시기는 0~7세의 유아기와 14~21세인 청년기의 중간 단계이다. 중간단계에 있어서 교과과정의 특성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교과과정이 제2기인 7~14세 자아형성기 교과과정 중에 미분화되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과정의 교육의 특성을 말한다면 두 가지로 함축되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유아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감각개발과 감성교육이 이 시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공작놀이와 기구를 통해 사물의 모양과 이치가 어떻게 구성되고 조립되었는지 손 감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작놀이에 사용되는 도구의 구조를 통해 외부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체득하게 한다. 앞서서도 기술하였지만, 이 때 손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도구들의 촉감이나 색상, 구성요건(딱딱하다거나, 물렁하다거나, 부드럽거나, 원형모양, 사각모양, 뾰족한 모양, 날카로운 모양), 소리(부딪치는 소리가 쇠소리, 나무소리, 플라스틱 소리 등)는 어린이의 심미적 감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세계를

인식하는 본능적인 이해의 기초(이성이나 논리,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감성적인 본능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됨)가 된다. 따라서 이 때 이루어지는 공작 놀이의 기구들과 교과과정에 사용될 소품들, 그리고 교실에 배치되는 사물의 구조와 색상, 재질들은 모두 어린이의 감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편성하게 된다. 그리고 음악편성에 있어서도 0~7세까지 이루어졌던 음악의 단선적인 리듬이나 반복적 정합성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성이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악기와 변주곡, 코러스, 화성음악이 교과과정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악기들의 협주를 통해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물과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와 교감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 그리고 14~21세에 이루어지는 인지적 능력과 합리적 사고의 개발을 위해 편성된 교과과정은 제2기의 과정에서는 감정과 감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은 슈타이너의 교육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적 능력과 이성적, 합리적 사고는 단순히 머리의 지각적 사실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영혼으로서의 감정과 감성 속에서 배태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슈타이너는 인지적 능력과 이성, 합리적 사고는 감정과 감성발달의 연장이며, 인지적 능력과 합리적 사고로서의 이성은 감정과 감성에 의한 세계 이해의 한 부분적 측면으로 이해했다.<sup>9)</sup> 그래서 그는 14~21세에 이루어지는 인지적 능력과 이성, 합리적 사고와 예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7~14세의 감정과 감성교육에

---

9) 이러한 점에서 슈타이너의 사상은 니체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즉 니체는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몸의 감성적 느낌으로 확장한다. 커다란 이성으로서의 몸은 ‘몸의 참된 본성’에 대한 이론적 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 삶의 느낌의 표현을 함축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성’이라고 불렀던 ‘작은 이성’으로서의 정신은 몸의 커다란 감성적 느낌에 속한다. 이 내용은 김미숙·임영희(2009)의 한국체육철학회지인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신체에 관한 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감정과 감성개발은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교과과정에 필요한 도구의 세심한 배려와 배치, 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감수성발달에 기여하게 하였다.

### ③ 제3기 - 사고발달의 시기 : 14~21세

이 시기는 청소년의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때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로 기하학, 수학, 지리, 역사, 문화사, 희랍어와 그리스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하학과 수학은 사고력과 이성을 개발하여 사물의 질서와 세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지리와 역사, 문화사는 인간이 살아온 문화와 그 지역의 특성,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보편의 예지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시기는 논리적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로, 감각에 의한 사물의 느낌(표상)에 의해 언어적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며, 언어적 개념을 통해 인지능력이 확장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희랍어와 헬라어의 문법체계를 배움으로써 보다 확장된 의식의 고양과 개념적 정립이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념적 정립을 통한 논리적 사고와 판단능력, 보다 고양된 주체적 인식은 자유로운 인간에 도달하는 계기가 된다. 청소년의 특징은 영혼의 꿈이 깨이는 단계라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성장한다. 감정영역에서 형성된 것은 보다 고차적인 정신으로 나가게 된다. 감정과 무의식에 있었던 충동과 욕망은 의식적이 되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아의식이 발달한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이 이해하고 의식하였던 것을 삶에 적용, 실천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생산,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의 실제경험이 중요하다. 자아를 자각하는 동시에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을 때 “나와 사회, 이 세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자각적 질문을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자각적인 의문과 질문의 과정에서 청소년은 보다 깊고 넓은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맡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기규율의 주체적 삶을 지향하게 된다. 이시기에 형성된 자기 규율적 주체적 삶은 제1기의 물질체 형성기에서 형성된 감각의 발달과, 제2기 자아형성기에 발달된 감성과 감정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의식과 사고력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청소년의 사고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4세와 16, 17세 사이의 첫 단계(반감과 부정의 단계 negationsphase)에서는 사고의 독립성과 비판력이 발달하고 자립적인 감성과 독자적인 정서는 16, 17세에서 18, 19세 사이인 두 번째 단계(긍정의 단계 affirmationsphase)에서 발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강렬한 체험의 에너지와 이상주의,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이다. 이제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진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체제, 종교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셋째 7주년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18, 19세에서 21세 사이에는 의지의 독립성이 발달하고 점차로 행동에서도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실행하게 된다. 이같이 자신만의 행동능력은 정신적 성숙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은 항상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성숙과 내적인 성숙의 조화이다. 청소년은 외적으로 신체의 변화와 갈등을 극복해야 하며 내면적으로는 느낌, 요구, 동경, 높은 이상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영적 공간을 성취하여 정신세계로의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사고발달의 시기에도 신체적 훈련과 감성 교육을 항상 겸용하여 조화로운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그는 기억과 암기, 사고력만을 기르는 교육으로 지나치게 일관된다면 쉽게 육체가 피로하여져서 건전한 사고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건전한 의식형성과 사고력을 위해서 항상 신체적 감각훈련과 감성적 영혼도 함께 고려한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학의 경우, 문화를 이해하고 깊은 사고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의 지적 인식의 자유로

운 지평의 변혁을 위해 각 영역을 세분화하여 주체적 인식과 객관적 진리문제에 대하여 깊이 체화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교사에 의해 일정한 주제를 도출시켜 학생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교사는 높은 지적 수준으로 각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주제를 고려해서 수업에 사용할 재료와 활용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수업이 개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이고 창조적이며 살아있는 강의가 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칠판에서는 항상 각 단원의 주제가 설명되어 있고 한 단원의 기간 동안에는 주제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마다 질문할 내용이나 의문 나는 것을 수업 후 교사와 일대일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 일상적 삶의 경험에 비추어 체화하여 자신의 인식적 지평을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역사학을 통해 단순히 인지적 기억이나 이론적 암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직접 그 역사적 삶의 현장과 분위기를 마음과 영혼, 감성의 체화를 통해 이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와 영혼, 정신이 잘 어울려진 홀리스틱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다음 장은 홀리스틱 교육을 토대로 근대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비교, 각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놀이와 공작교육, 신체운동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V. 인지학에서의 홀리스틱 인간형성의 의미

### 1. 근대교육과 홀리스틱교육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전인교육은 다른 말로 홀리스틱 교육과 동일한 사상적 연원을 갖는다. 특히 인간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개체적으로, 또는 이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관적(全觀的)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교육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인(全人)’은 ‘홀리스틱’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인교육, 혹은 홀리스틱 교육의 기본관점은 “데카르트적, 뉴턴주의적인 근대이성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실체관”으로부터 “생태 자연주의적인 전인적 인간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주 전체와 부분,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매리 휴튼 칼킨은 홀리스틱의 세계관에 대해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전일적(全一的) 세계관을 이루며 상호 의존, 발전하는 포섭의 관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근대 이성의 기계론적 인식구도에서 성립된 교육과 홀리스틱한 전인적 인식관에 기초를 둔 교육의 차이점을 도표화 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근대화 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비교

근대교육의 초점	홀리스틱 교육의 초점
기본적인 교육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구별 교육자로부터 일방적 교육관계 학습자가 내부적으로 지식과 기능을 축적하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환원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만드는 것 상호작용 자기와 세계와의 다중적 관계, 지식변용 전체적 우주적 생명(유기체)로 흐름에 참여
학습자 관	
합리적 지성중시 심신의 분리 독립한 개인 외적 동기 부여 무한의 일반적 가능성	신체, 영혼, 정신의 조화 중시* 삶과 개인의 통합적 이해** 전체(whole)로서의 인간 내적 동기부여 특수적인 개성적 잠재력 고려
교육내용/학습방법	
학습능력의 요소 주의적 이해 교과목의 세분화 사실, 개념, 법칙 등 명시적 지식 중시 지적 학습중시 경쟁 원리 효율성과 결과 중시 고정된 교육과정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다수의견중시	학습능력의 전체적 이해 교과의 통합 의미, 가치 등 중시 직관, 이미지, 느낌 등 다각적 체험 중시*** 조화와 협동 결과보다 과정 중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다원적인 상호주관적인 평가 소수의견 중시
학교제도	
균질화, 표준화, 일원화 중앙의 관리 통제 폐쇄적, 교육기회의 독점 국가의 수단화로 통합	다양성, 선택 폭 확대 자율 개방적 개인의 자율적 전인 인간적 존재 인정

출처 : 吉田敦彦(1997), ホリスティック教育の 概論, 홀리스틱교육실천연구, 2호, 13~19, 재인용. \*, \*\*, \*\*\*의 항목은 연구자가 첨가한 것임.

근대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인식하는 태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근대적 교육에서 인간관은 인간을 기계론적, 고립적, 수단의 존재로 보는 반면, 홀리스틱 교육관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유기체적 통합체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에서 나타나는 교육관과 학습방법은 폐쇄적 구조와 자율적 구조, 주지주의적 경쟁구도와 다각적 체험중시의 조화와 협동, 균질적 일원화와 자율적 다양성의 존중으로 나타난다.

오늘 현대 대중교육은 전자의 근대이성교육의 일률적 집단교육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주의적 팽창과 산업자본주의 발달로 신속한 인재양성과 수급의 필요성에 교육이 그 역할을 뒷받침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이성의 집단주의 교육 과정에서 개별적 인간의 특성은 무너져 내렸고, 인간 그 자체의 존재성과 인격성을 도야하는 가치실현은 어느새 경쟁구도와 획일적 지식습득의 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인간은 국가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수단화되어지고 있다.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물음’과 ‘인간 본성의 자유로운 실천론’으로서의 홀리스틱 교육론은 현대 집단적 이성교육의 병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2.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홀리스틱

교육의 목적은 변화에 있다. 그 변화는 제2의 본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Rudolf Steiner, 1947: 132). 이는 단순히 교육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적응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세계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 능력은 자신의 주체의식인 ‘자아’를 발견하는 데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자

아의 본성이 이르는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인간의 ‘전인적인 존재(the whole human being)’를 확립함에 있다. 전인적 존재로의 육성에 목표를 둔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먼저 교사에게 주문한다.

교사는 어린아이를 지도함에 있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하고도 신비로운 내적 전개과정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다분히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교사가 인지학적 관점보다 더 훌륭하다면 그것대로 실행하면 된다. 인지학은 어쩌면 가장 불확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린이를 전인적인 존재로서 인정하고 예술가로서 가르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인지학의 가르침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Marry Caroline Richards, 1980: 64).

즉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의 교육은 어떤 정형화된 교육적 지침이나 가르침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인지학은 가장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 교육학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지침과 교육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교육생들의 개별적 특성이나 존재성은 교육적 지표와 목표에 가리어진다. 학생들의 가치는 오로지 교육적 지표와 목표달성에 수단화된다.

슈타이너는 미리 정해진 목표지향적 교육지침이나 교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발도르프학교의 교육목표는 목표가 없는 것이 목표이다. 굳이 그 목표를 말한다면, 개별 학생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 ‘자유로운 상황적 교육’만이 교육적 목표가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만약 교사가 인지학적 관점보다 더 훌륭하다면 그것대로 실행하면 된다. 인지학은 어쩌면 가장 불확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슈타이너는 교사의 상황적 판단을 인지학이 제시한 철학적 교육보다 우선시 한다. 이는 미리 정해진 목표지향의 교육방법보다는 개

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적 교육의 실천’을 더 중시한다는 슈타이너의 교육 인식관을 엿볼 수 있다. 항상 어린아이의 개성과 기질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 교육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이 올바르다면 인지학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인지학적 교육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인지학이 어떤 학문적 토대나 연원이 있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특수한 상황이나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인지학에 전인적 교육의 특성이 배어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지학적 교육에 목표지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지학적 교육의 실천적 목표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태도이며, 그 전인적인 교육 태도는 어떤 정해진 외부적 방법론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가르치는 것’에 있다.

인지학이 지니고 있는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일상적 삶과 연관해서 끊임없이 어린이로 하여금 직관력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의 전체에서 비롯되는 살아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분리된 자아와 삶의 부분들을 통합하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통합적이며, 어린이 스스로 삶의 전체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지적해주는 것이다(Marry Caroline Richards, 1980: 65).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은 “신체에 깃든 생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과정이다. 즉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참다운 본질인 존재성을 확인하고 그 생명성이 온전히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된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다”(Debbie Shapiro,

1996: 4)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슈타이너 교육사상의 특징은 신체, 영혼, 정신의 조화와 통일 속에서 전인적 존재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슈타이너 인간교육의 지향점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합일적 전인교육에 있다. 특히 정신의 추상성은 자칫 현실성에서 이탈하기 쉬운 경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슈타이너는 영혼과 정신의 교육을 반드시 감각의 현실적 구체성을 제공하는 노작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감각의 발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노작교육은 이론과 실천,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통합, 지식을 축적시켜주는 기억력 및 새로운 창조와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전인으로서의 인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교육론은 어떤 일률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률적인 규칙이나 학교의 규범보다는 개별 학습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감과 상황, 그리고 개별 학생의 변별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학습운영이 더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교육관의 바탕에서 슈타이너가 추구한 전인교육은 1차적으로 신체와 영혼, 정신의 합일적 조화에 있었다.

### 1) 자아와 사회관계의 조화

슈타이너 교육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인 전인적 존재로서의 미학적 인간을 지향한다. 그가 말하는 미학적 인간은 예술적 인간이기도 하다. 신지학에서 인지학으로, 그리고 인지학에서 바라는 이상적 인간은 다름 아닌 예술적 인간, 즉 미학적 인간이다. 이러한 미학적 인간의 형성은 오이리트미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이리트미는 신체, 영혼, 정신의 관계에서 내면적 조화와 균형을 제공하여 내적 성숙을 유도한다. 오이리트미의 언어, 음악, 동작(도형)의 장르는 인

간의 지성, 감성, 신체의 영역을 조화롭게 한다. 무엇보다도 오이리트미는 내면의 세계와 외부세계에 대한 체험을 몸을 통해 표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몸은 음악과 언어를 표현하고 음이나 말소리에 맞추어 고유한 동작으로 표현한다. 특히 손과 몸의 동작은 언어의 생동감을 보여주어 살아있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에 맞는 의상과 색상, 무대 조명, 그리고 각 장면마다의 새로운 분위기와 시각적 효과는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거기에 소리와 음악적 요소는 인체의 모든 기관을 자극하고 융합하여 전인적 존재로서의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오이리트미는 의식과 느낌 상상력을 깊고 풍성하게 하여 그 흐름이 신체 중심에서 나와 몸을 관통하고 온 공간에 펼쳐지도록 한다. 그리하여 자신과 관객, 세계가 하나가 된다. 정해진 동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영혼, 신체의 합일적 체험을 하는 것이 오이리트미이다. 소리와 음악, 율동이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듯이 오이리트미 또한 이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인간의 호흡과 소리, 동작을 통해 자신의 신체 안에 우주적 생명의 리듬을 육화시킨다.

인간 내부에서 존재하는 사고와 감정 또한 호흡의 리듬에서 발생한다. 발화와 청각은 호흡 리듬의 다른 모습이다. 숨을 들이쉬면 사고와 의식, 감정이 함께 신체내로 수렴된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사고와 의식, 감정이 밖으로 나간다. 일정한 리듬은 영혼과 정신, 신체를 안정되게 한다. 그러나 급박한 호흡과 거친 호흡은 신체와 정신, 영혼을 불안정하게 한다. 슈타이너는 오이리트미의 리듬을 우주의 리듬과 식물세계의 영혼의 리듬에 맞추어서 구성하였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호흡을 규칙적으로 리듬 있고 안정되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Rudolf Steiner, 1988: 166)라고 이야기 한 것은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일체감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호흡을 통해 음악적으로 균형 잡힌 감정을 내면에 자라게 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자연 및 생명의 리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상호 작용하는 전체적 측면의 지식

을 체화하는 것이 된다(A. Nobel, 1996: 105). 따라서 발도르프학교 교육이나 오이리트미 교육의 핵심은 전인적 자신다움(인간다움)의 발견과 자아와 우주의 조화로운 합일적 지향에 있다.

슈타이너는 예술이야말로 신체적 감각과 영혼, 정신이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요소로 보았다. 즉 예술적 감성은 사물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영적인 수단이며,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오늘의 체육·스포츠계가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고려한 예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본다. 인간의 존재를 반드시 육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로운 전인적 합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은 예술적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예술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비상하는 정신의 자유로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물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물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으로 이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략) 아름다움은 감각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부터 정신으로 비상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감각적 인식의 세계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의식으로의 비상을 제공한다(Rudolf Steiner, 1972a: 128).

슈타이너는 예술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와 세계를 연결함으로 우주와의 소통과 합일로써 조화를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의 기질을 고려해서 그 기질에 맞는 악기와 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홀리스틱 교육의 한 특성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슈타이너가 분류한 4가지의 기질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적합한 홀리스틱 교육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기질과 악기의 잘 조화된 바른 음악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기질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담즙질의 기질은 화를 잘 낸다. 화는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다. 따라서 타악기의 경쾌한 소리는 분노의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화(純化)되도록 한다. 점액질의 기질은 기쁜 감정을 잘 나타낸다. 기쁜 감정은 횡격막, 간부위에서 하복부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이다. 따라서 피아노나 건반악기로 기운을 상복부, 횡격막 이상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정(中正)의 기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우울질의 기질은 자아중심의 애정을 내면으로 강하게 잘 나타낸다. 애정(愛情)은 하복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하복부에 몰려 있는 감정을 상복부, 또는 횡격막이상으로 올리려면 현악기 음악이 필요하다. 현악기는 하복부에서 상복부, 그리고 횡격막 이상으로 올리는 기운이 있다. 다혈질의 기질은 내면에 슬픔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면이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다. 불안한 마음은 횡격막 이상에서 머리로 치닫는다. 따라서 목관악기로 감정을 다스려 준다. 목관악기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하복부로 기운을 내려준다. 하복부로 내려오는 기운은 사랑스러운 기운이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다혈질은 목관악기 소리를 들으면 어느덧 감정이 풀어진다고(권오순 / 권오돈 역, 1990: 375).

발도르프학교의 커리큘럼에는 학생들의 기질적 특성과 내면적 느낌, 경험된 인상을 특별한 예술적 영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구성되도록 했다. 또한 예지력 있는 사고와 분석 훈련은 늘 비주얼 아트가 제공하는 상상력과 소리의 청각훈련, 감각을 자극시키는 공작활동을 통해 통합하고 심화 육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들 교육의 범주는 크게 시각예술, 음악, 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각예술의 색상, 선, 형태, 재질은 무한한 상상력을 활성화 한다. 그리고 음악의 소리, 멜로디, 리듬, 율동은 감성영역을 확장시켜 온 우주와 교감하는 관계의식을 확장시킨다. 그리

고 문학의 단어와 언어는 예지력과 사유(思惟)의 다양한 분석과 종합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슈타이너는 인간 생명의 원리를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우주적 생명으로 확장하여본 슈타이너의 인식관은 말 그대로 홀리스틱 생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기질을 고려하고 그들의 개별적 내면의 느낌과 경험을 그 어떤 틀에 박힌 교육지침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느낀 슈타이너 전인교육의 2차적인 지향점은 자아와 사회(인간)와의 조화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2) 자아와 우주의 소통(understanding)과 합일(unity)

슈타이너에게 있어서 ‘자아’는 우주의 작은 부분인 ‘소우주’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우주는 전체 우주와 함께 교감(交感)하고 모이고 흩어지며 생멸(生滅)을 거듭하여 물질체와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로 변화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생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에 의해서 가능하다. 슈타이너도 인간을 고립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본질을 ‘우주와의 합일적 존재’로 규정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깥의 타자가 아닌, 바로 자신 내면의 중심부에서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는 우주적 존재로 확장하게 되었다.

인간의 특별한 개별성이 우주와 함께 연결된 요소임을 우리는 생각 속에 담고 있다. 감지하고 느끼게 됨으로써 (지각함으로써) 우리는 개별 본질체이며, 또한 생각함으로써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유일한 본질체인 것이다. (중략)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힘, 즉 보편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힘이 세상의 중심부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한 점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크리  
스토프 린던베르크, 1998: 76).

인용문에 나타난 ‘주변의 한 점’은 ‘자아의 본성’을 의미한다.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자아의 본성’은 개별존재의 본질체이며 감지하고 느끼고 지각  
하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만들어가는, 형성해나가는, 성장해나가는)  
유일한 본질적 주체이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인간 존재에 대해 위대한  
규정을 내린다. 그것은 우주의 절대적인 힘, 보편적인 어떤 힘이 외부(세상)  
의 중심이 아닌 바로 내 자신(자아)의 ‘한 점’에 내재해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내 자신 안(본성, 혹은 자아)에 우주의 보편적인 힘과 질서가 내재되  
어 있다”는 말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슈타이너가 인간의 존재를 개별적 존  
재로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 안에 우주의 근원적인 절대적인  
힘과 보편성이 내재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자신 안에 내재한 절대적 힘과 보편적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교육이며 배움의 길이라고 말한다.

슈타이너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성  
장 발전하여 우주와 하나가되는 존재인가를 인지하기를 원한다. 만약 인간  
과 우주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  
차원의 자유로운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확장된다.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최종 목표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사후 자  
신의 몸과 자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를 인지함으로써 자유로운  
본성을 지닌 전인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슈타이너는 전인적 존재의 조건을 자아와 세계의 합일적 세계관에 두었  
다.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은 세계는 영원히 타자일 뿐이다. 오로지 자신이  
이해하고 인식한 세계와 대상만이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세계와의 진정한 관계와 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슈타이너에 있어서 ‘이해(understanding)’는 모든 교육의 지향점이다. 그는 ‘이해’를 사물의 본성을 깊이 통찰하고 꿰뚫어보는 의식혼의 인식과정을 의미한다. 이해는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대상과 ‘소통(understanding)’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우리가 무엇을 참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고통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해’는 자신의 주체적 자아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외부 대상도 함께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외부대상의 인식은 자아의 주체적 발견위에서 비로소 세워진다. 자아의 발견은 내안에 존재하는 참다운 실재, 내면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주를 구성하는 참다운 실재와 소통하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이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통과 합일을 말한다. 특히 그는 소우주로서의 몸을 물질체로부터 영계까지 소통하고 교감하는 장(場)으로 인식했다. 이는 야스퍼스가 “삶이란 살아 있는 몸일 뿐만 아니라 매일 관계를 맺는 내적인 세계와 환경적 세계와 더불어 현존하는 것이다”(Karl Jaspers, 2000: 304)라고 말한 것처럼 몸은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합일되는 자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인간을 우주의 합일적 존재로 인식하는 슈타이너 사상은 만물이 나누어질 수 없는 통일성 또는 전체와 부분이 하나로 보는 홀리즘(holism)

---

10) 슈타이너 사상의 맥락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해’와 ‘소통’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 ‘understanding’으로 표현하였다.

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슈타이너의 고차원적 홀리즘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우주에는 실재의 상호연관성과 근원적인 통일성이 존재한다.

둘째, 개개인의 내적 문제는 고차원의 세계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셋째,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과 통일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차원의 인식과 직관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간과 우주 질서의 최고의 원리에 해당하는 인간의 ‘내적인 자기(inner self)’를 표현하는 데에 ‘영혼’과 ‘정신’을 사용한다.

이런 홀리즘적 인식은 슈타이너 사상 도처에 내재해 있다. 특히 신체와 우주의 연관성에 있어서 “자연의 심오한 질서인 우주는 자기를 아는 것의 의해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소우주인 것이다(Jacob Needleman, 1982: 59)”의 야콥의 말처럼, 슈타이너 사상은 철저히 인지학에 기초하여 인간중심의 자기이해에서 출발해서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우주가 상호 소통하는 존재이고 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아는 우주 생성변화의 내적 전개 과정 속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인지학은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인지학이 보여주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각세계의 감각적 인지뿐 아니라, 감각 이전의 생명의 존재와 감각 이후의 사후의 영향이 그의 일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크리스토프 린던베르크 / 이정희 역, 1998: 209).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일반인간학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생명 이전의 삶과 생명 이후의 삶 전체를 통관하는 우주론적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물리학에서의 소립자의 세계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끊임없는 춤판이 벌어진다. 존재의 안팎에서 순

간적인 형태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었다가 사라진다(게리 쥬카브, 1998: 197). 인간은 우주에 있어서 소우주이며 소립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지학에서 인식하는 소립자로서의 인간은 물리학에서의 소립자와 그 성격이나 의미가 다르다. 슈타이너에 있어서 소우주인 인간은 단순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우주와 자신의 관계를 규정, 설정하고 자신을 우주적 존재로 확장하는 전인적 존재가 된다. 이의 출발은 다른 아닌 우주의 보편적 질서와 절대적 힘이 내재한 ‘자아’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 3) 우주의 소통과 합일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슈타이너는 인간과 우주의 소통·합일의 표현을 ‘리듬’으로 설명하였다. 인간은 평균 1분에 18번의 호흡과 72회의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며 혈액과 산소를 전신의 신경과 혈관, 장부와 기관으로 보낸다. 호흡과 맥박의 1:4의 리듬은 지구와 태양의 조율적 리듬관계와 일치함을 말한다. 몸은 24시간이라는 하루의 리듬을 가졌고 낮과 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신체와 정신이라는 양극성을 지닌다. 영혼, 또는 아스트랄체는 일곱 행성의 원형에 해당되는 7일의 리듬을 가졌으며 생명체, 또는 에테르체는  $4 \times 7 = 28$  일형의 리듬을 가졌다. 이는 곧 인간의 에테르화 현상인 생명리듬과 시간, 공간리듬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리듬체계의 일정한 규율을 잡아주는 폐(호흡)와 심장(혈액순환)을 영혼에 배속하여 생명리듬을 관장하게 하고 감정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으로 보았다(임용자, 2000: 193).

생리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체의 기관들은 호흡작용과 혈액순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맥박의 일정한 리듬은 지구와 달, 태양의 역학관계의 주기에 의한 것으로 만물의 생멸에 관계한다. 혈액순환에서의 맥박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이며 일정한 심장의 울동과 파동은 지구 외부에 흐르는 파동과 동일한 비율로 움직인다. 심장의 박동을 움직이게 하는 동방

결결의 자극은 심장 스스로의 힘에 의하기보다는 지구와 태양계, 더 나아가 우주의 파동과 박동에 의한 자극으로 움직인다. 달의 주기와 여성 생리기간의 정합성, 밀물과 썰물의 운동 등은 모두 부분과 전체의 조율과 리듬에서 함께 조용하고 합일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크리스티안 노스립 / 강현주, 2000: 104 ~ 110).

인간과 우주의 밀접한 관계를 리듬으로 설명한 그는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자신의 존재가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합일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내면 세계와 외부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교육을 강조한다.

아동에게는 항상 자연과 동물에 대하여 가르쳐야한다. 아동들에게 계속적인 발달단계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진화의 원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식물학이나 동물학에 대한 공부와 실습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진정한 관계를 깨우치게 된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듯이 인간의 머리에서는 머리가 자라나는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 땅과 식물과의 관계처럼, 사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들의 육체와 영혼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 학습의 핵심은 바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Rudolf Steiner, 1981: 168 ~ 169).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과 사물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과 인간, 사물은 상호 영향을 주며 성장한다. 아스트랄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아스트랄체가 아닌 다른 요소, 즉 에테르체, 자아체로 구성되듯이 인간은 인간 아닌 다른 요소, 즉 자연과 사물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간과 우주, 자연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 성장 변화하는 관계이며, 이러한 우주와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인지학적 교육의 핵심임을 슈타이너는 강조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우주계의 생명을 실체화(대상화)하지 않는다. 인간과 우주의

조응과 합일에 의해 생명 스스로 내적 동인에 따라 전개해 나갈 뿐이다. 자연과 우주의 '합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언제나 일정한 리듬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사적(私的)인 감정이나 욕망이 탈락된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식은 슈타이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물질체와 에테르체 상태에서의 감각과 감정에 동일시하지 않고 고차원적 인식의 지평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의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슈타이너는 세계와 우주, 인간에 대한 절대정신의 완전한 이해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작은 사적인 일과 감정에 결코 휘말릴 수 없다. 슈타이너는 우주와의 소통과 합일, 그리고 그 보편적 질서와 절대적 힘을 자아의 본성에서 발현시키는 사람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규정한다.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이상적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간'은 곧 '홀리스틱한 전인적 존재'를 말한다. 자아와 인간의 존재를 우주의식으로까지 확장시켜 우주와 소통하고 합일되는 홀리스틱 교육으로의 지향점이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교육이라고 슈타이너는 강조하였다.

### 3. 홀리스틱적 신체교육과 오이리트미

#### 1) 신체교육을 위한 놀이와 공작교육

슈타이너는 신체교육에 있어 놀이와 공작(노작) 교육에 대해 언급한다. 놀이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삶을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작 훈련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손, 발동작과 연관된 감각기관을 자극함으로써 감성과 감정, 사고, 인지능력을 발달시

킨다. 슈타이너에 있어서 놀이와 공작(노작), 예술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아이의 놀이는 하나의 장난스러운 행동이 절대로 아니다. 이는 아주 깊은 진지함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따라서 놀이는 어린이의 세계관을 구성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어른의 역할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때의 어린아이는 어른이 제공하는 환경으로부터 모든 경험과 체험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그 환경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목적 없이 놀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자극과 충동을 일깨우는 행위놀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문이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놀이는 아이의 인격과 성격, 삶의 태도와 존재방식에 영향을 준다. 즉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이는 놀이하듯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어른이 성장한 후에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주 느리게(천천히) 노는 아이는 20년 후에도 삶의 경험에서 종합되어진 것을 느리게(천천히) 생각하게 된다. 놀이 안에서 표면적으로(건설적으로) 놀던 아이는 후에도 표면적이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약간의 관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이가 놀이 안에서 발전시키는 특별한 경향들을 이미 알 수 있고, 나중에 아이의 영혼 상태(심적 상태), 아이의 성격 등 많은 것을 이미 예견할 수 있게 된다.”<sup>11)</sup>

아이는 자기의 놀이 안에서 사는 그 진지함과 함께 후의 어른으로서 직업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아이의 놀이와 어른의 일 사이의 차이는 ‘자극’과 ‘목적성’의 차이이다. 놀이의 자극은 아이의 내면으로부터 상상력이나 감성이 나타나지만, 일의 목적성은 의무와 책임에 의한 행위이다. 자극은 기쁨과 재미, 깊은 만족감이 생기면서 아이의 내면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다.

---

11) 루돌프 슈타이너 1920년 6월 14일 강연, 물질육체의 건강한 발달.

슈타이너의 이러한 인식에서 아이에게 자극할 수 있는 놀이와 공작으로서의 신체교육을 도표화 하여 만들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연령별 신체교육을 위한 놀이 및 공작교육

나이	놀이	특징
1~3세	나무 조각이 들어 있는 바구니, 나무를 깎아 만든 삽이나 수저, 인형, 나무말(타고 흔들 수 있는 크기) 등	단순하고 약간의 물건들이면 놀이에 충분하다.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자극하는 단순한 놀이감도 좋다.
3~5세	인형을 감싸는 천, 엮어주는 포대기, 나무말과 마차, 자동차, 나무팽이, 그림만 있는 그림책, 간단한 끼워 맞추기 등	움직이는 놀이감이나 간단한 조작을 통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공작놀이기구가 좋다.
5~7세	진흙, 구슬, 나무, 망치 등의 공작놀이 실습도구들, 약간의 큰 글씨가 있는 그림책 등	3~5세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보충되어진 것으로 손동작이나 두뇌를 자극하는 공작 놀이감들이 좋다.
7세~12세	가위, 골무, 실과 천들이 들어 있는 바구니, 좀 더 구체적이고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공작실습도구들 등	손과 발을 자극시키면서도 약간의 신체적 땀이 날 정도의 공작(노작)놀이가 좋다.
12세 이후	목공일, 농사짓는 일(채소 과일 재배와 관찰), 속기, 측량술 등	실용성과 함께 삶의 심미안을 함께 기르도록 한다.

<표 13>을 종합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일곱 살이 될 때까지 활동적인 놀이와 공작(노작)놀이를 통하여 신체적 감각이 자극, 발달되면서 향

상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알아가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한다. 이때의 신체 감각은 외부세계를 향해 완전히 열려 있는 시기이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감각인상들은 아주 깊이 신체 조직기관에 영향을 주어 이 시기에 형성되어 가는 기관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좋고 나쁨의 사변적 구별이 없이 모든 과정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여 ‘신체화’가 된다. 아이는 자각을 움직이는 뇌가 아직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체험에 따라 신체에 각인된다. 따라서 소리와 색, 질감, 주변 가구의 안정된 비례대칭의 배치, 교사의 목소리와 분위기 등은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놀이와 공작(노작)교육은 아이에게 느낌과 감각의 인상의 의미가 풍부한 관계성을 연결시켜주고 또한 상상력과 체험, 통찰력과 예지력을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아이는 각 단계별 교육을 통해 감각에서 느낌, 감성과 상상력, 사고력과 예지력이 생기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특히 노작활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육체·영혼·정신을 일치시켜 주는 존재로서의 전인(全人), 그리고 내면의 세계와 외적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교육활동이다(전일균, 1996a: 49). 슈타이너는 이런 신체교육을 통해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그리고 영혼과 정신이 함께하는 인간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물질주의가 지니고 있는 편파적 교육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교육이 결코 외부 세계의 기능들에 적응해가는 법칙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느끼도록’하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Steiner Rudolf, 1982: 80).

아이의 되어져 가는 존재, 만들어져 가는 존재, 미완에서 완전함으로 이행 발전하는 존재이다.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교육은 어떤 일정한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어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존재하고 반응하는가에 따

라 아이의 내면을 열어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인간의 성장  
은 끝이 없다. 어른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도 또 다른 영적 성장(excarnating  
forces)의 한 과정이라고 슈타이너는 생각했다(Marry Caroline Richards,  
1980: 46).

## 2) 학년별 신체운동프로그램<sup>12)</sup>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운동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게 게임  
과 운동 활동, 그리고 스포츠 등을 하면서 공간을 탐험하고 경계나 범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 신체운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 ① 1학년 ~ 5학년(7 ~ 11세) : 공간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내기

첫 5학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이 spud, london bridge, crows, 그리고 greess  
등과 같은 게임을 통하여 달리기, 깡충 뛰기, 멀리 뛰기, 쫓아다니기, 점프하  
기, 리듬 있게 박수치기, 몸 흔들기, 구르기, 잡기, 던지기, 그리스 역사와 고  
대 올림픽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임 등의 운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  
해 가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근육체계가 리듬체계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신체 활동에 있어서 방향을 잡  
아가는 것들은 즉 왼쪽/오른쪽, 위/아래, 전/후, 민첩성과 상호작용 등이 강조  
되며, 모든 것들은 자신 안에 중심을 놓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② 6학년 ~ 8학년(12 ~ 14세) : 공간속에서 형식을 체험하기

이 시기에는 보트머 훈련, 구기운동, 그리고 체조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공

---

12) 아이리움 <http://cafe.daum.net/iraum>

간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탐험하도록 노력한다. 움직임 자체가 주는 동역학과 리듬,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 보면서 기교와 역할을 접하게 된다. 이런 노력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영역 모두에서 증가하는 중력에 저항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협력을 통한 배움이 강조가 된다. 이어달리기, 달리기, 철봉, 구리볼, 구리막대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미리 배운 기술에 대한 숙련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게 한다.

### ③ 9학년 ~ 12학년(15 ~ 18세) : 공간의 경계나 범위를 규정지기

고학년 아이들은 이제 공간을 정의 할 준비가 되어있다. 각 학년마다 강조점이 상이하다. (9학년은 양극성, 10학년은 균형, 11학년은 분석, 그리고 12학년은 종합)

계속적인 기술 개발, 스포츠와 관련된 테크닉 훈련, 수비에 대한 초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새로운 스포츠와 게임, 암벽등반, 육상경기, 크로스컨트리, 매트 구르기, 곡예, 특수 동역학과 보트머 체조, 박력 있고 힘차면서도 균형 잡혀 있는 훈련 프로그램, 골프, 라켓볼, 매트구르기, 곡예 등을 실천한다.

이때 자세, 변형, 정확성, 의식적인 움직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보다 조화로운 움직임을 갖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서로서로 보다 강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게 된다.

### 3) 오이리트미 적용 및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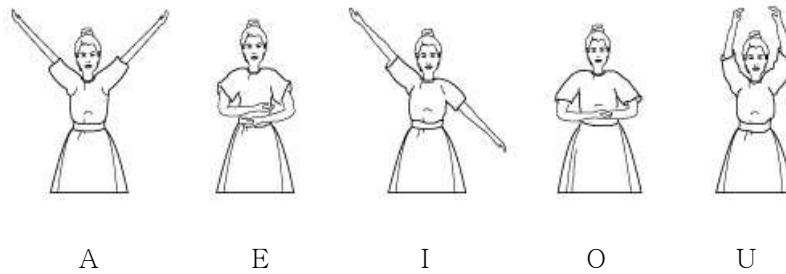
#### (1) 오이리트미 기본동작

7~14세에는 공간적 질서와 시간적 질서를 바탕으로 리듬을 고려한 오이리트미로 구성한다.

모음군 A, E, I, O, U를 모음 오이리트미로 표현하며 내적 자아의 경험 및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육체를 악기와 같은 존재로 새롭게

바뀌 공간과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매개체임을 인식하게 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 형태를 따라 움직이게 하면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동시에 공간 속에서 물 흐르듯 신속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오이리트미 훈련을 통해 자유롭게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운다. 리듬은 상승리듬과 하강리듬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승리듬은 약강 간격이 포함되며 이때의 움직임은 목표지점을 향하여 앞으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하강리듬은 목표물에서 멀어지고, 뒤로 가는 움직임으로 때로는 짧은 걸음내에서 갑자기 멈추는 것과 같은 강약 간격을 포함한다. 또한 이시기에 실시할 수 있는 오이리트미 기본동작(A·E·I·O·U)으로 아래[그림 3]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체적 표현과 효과는 <표 14>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 오이리트미 동작(A·E·I·O·U)

<표 14> 오이리트미 적용 프로그램

음성	신체표현	효과
I-A-O	오른팔을 위로 왼팔을 아래로 뻗어 보이고, 잇달아 양쪽 팔을 펴서 위로 내밀고 동그랗게 합친다. 이 때 I-A-O로 발음하면서 리듬 있게 팔을 흔든다.	신체의 감각으로부터 영혼과 감성, 정신이 깨어나고, 지력이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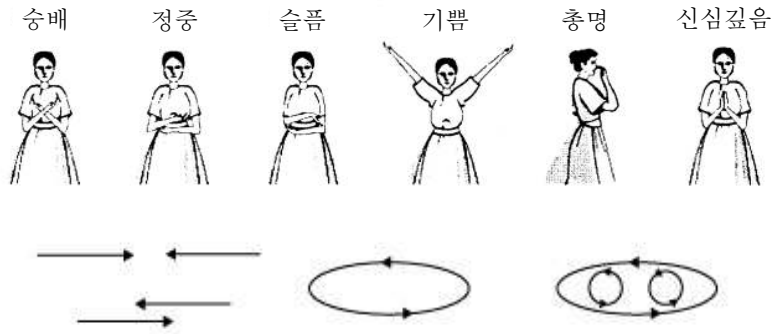
U-U	손을 머리위로 올려 U자를 그리면서 몸을 좌우180도씩 돌린다. 이 때 U-U 하고 발음하면서 몸을 좌우로 돌린다.	영혼과 정신의 작용물질인 흥선과 갑상선을 자극한다. 영혼과 정신의 교감뿐만 아니라 하복부의 부신까지 연결하여 영향을 준다.
E-E	양쪽 팔을 위로 들어 올려서 아래로 부채를 부치듯이 내리면서 하복부(단전)을 가볍게 두드린다. 이 때 E-E의 발음을 하면서 단전을 두드린다.	단전은 신체와 영혼, 정신적 요소가 잠들어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을 자극하면 신체와 영혼 정신이 활성화 되어 용기와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S-CH-H	몸을 발아래로 굽히면서 팔로 복부를 휘감아 굽혔던 몸과 함께 일어나면서 위로 힘껏 뻗친다. 이 때 발음은 S-CH-H를 하면서 연속해서 팔을 복부를 휘감아 굽혔던 몸을 펴면서 팔을 위로 뻗친다.	하복부, 단전, 내측 정강이쪽을 강화한다. 특히 부신 호르몬을 자극하여 위쪽의 췌장, 흥선, 갑상선을 연결한다. 신체적 요소가 영혼과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신체적(질료적) 기반을 제공한다.

## (2) 오이리트미 응용동작

오이리트미 응용동작으로 11세 정도가 되면 혼자서 원을 만들며 걷는다. 오이리트미 동작을 할 때 원의 중심점을 의식하면서 원을 만들며 여러 동작을 할 수 있다. 그곳에서 같은 거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은 계속 앞을 향한 자세다. 중심점은 지금 '자기 오른쪽이다, 뒤 대각선 방향이다, 약간뒤쪽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자각하면서 걷는다.

승배, 정중, 슬픔, 기쁨, 총명 등의 오이리트미 동작을 [그림 4]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작을 취하며 교사의 음성에 따라 큰 원, 작은 원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림 4]와 같은 동작을 통해 산만한 어린이들은 집중력

을 기를 수 있으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김미숙, 2002: 81~82). 원의 형태 유지를 위해 긴장감, 이완감, 내적 장애감, 해방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4] 원 오이리트미  
출처 : 김미숙, 2002: 82

### (3) 구리볼과 구리막대 응용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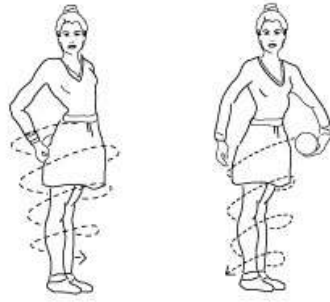
구리볼 훈련과 구리막대를 이용한 오이리트미 응용동작은 근육 강화와 사지 통제력을 발달 시켜 영혼과 정신의 육화를 촉진시키기, 공간지각, 자아감 및 자신감증진, 창조력·사고력·협응력·리듬감·집중력 발달시키기, 건강한 호흡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child, 1991; poplawski, 1998).

다음은 구리볼과 구리막대를 응용한 오이리트미 동작의 예이다.

#### <구리볼 응용동작 예>

##### ① 몸 주위로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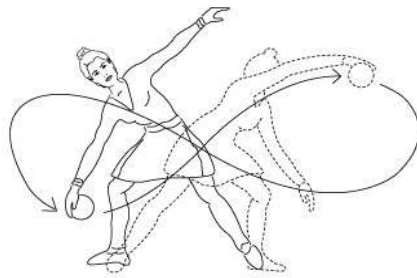
- 허리, 무릎, 발목 주위를 두 손을 바꿔가며 공을 돌린다. 한쪽 방향이 아닌 양방향을 같이 실시한다.
- 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속도로 돌리도록 한다.
- 허리의 유연성과 몸의 중심축을 지각할 수 있으며 몸의 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림 5] 몸 주위로 돌리기

② 8자 그리며 흔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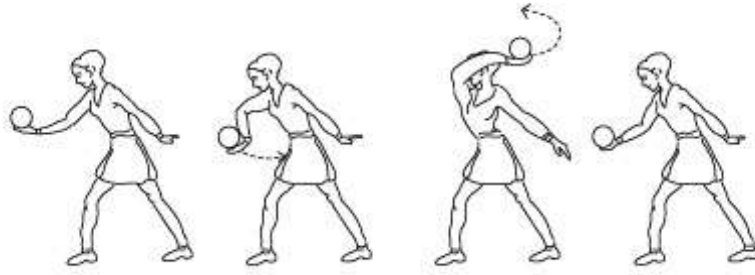
- 한 손에 구리볼을 들고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중심이동을 하며 몸 앞에서 8자를 그려주며 운동한다.
- 좌·우를 이용한 몸의 중심이동으로 신체의 리듬과 유연성 기를 수 있다.



[그림 6] 8자 그리며 흔들기

③ 양팔로 8자 그리기

- 구리볼을 오른손에 들고 가슴 앞에서 안으로 돌려 머리위로 돌리고 다시 가슴 앞으로 와서 왼손으로 구리볼을 받아 똑같이 한다.
-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동작이며, 전신운동과 몸의 중심, 조정성, 균형감 등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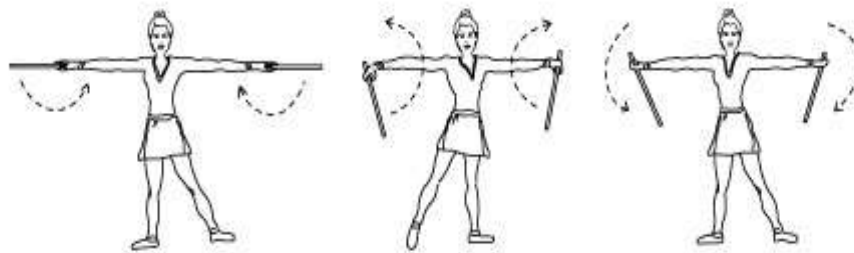


[그림 7] 양팔로 8자 그리기

<구리막대 응용동작 예>

① 스텝하면서 구리막대 떨어뜨렸다 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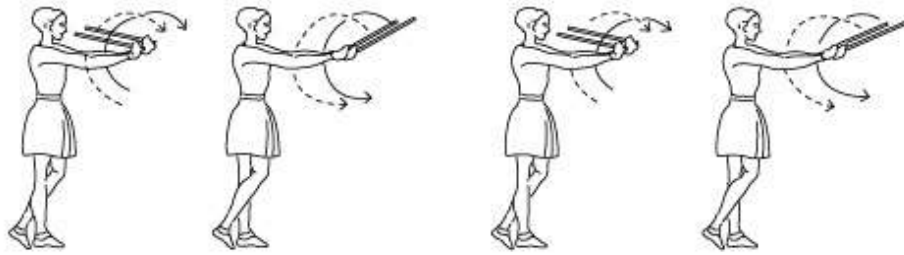
- 옆으로 한발 걸어가며 팔을 벌린다.
- 다음 step하며 막대를 밑으로 떨어뜨린다.
- 다시 step하며 막대를 위로 올린다.
- 손목을 이용하며 팔의 근력과 평형감, 공간 지각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림 8] 스텝하면서 구리막대 떨어뜨렸다가 올리기

② 안쪽 바깥쪽 작은 원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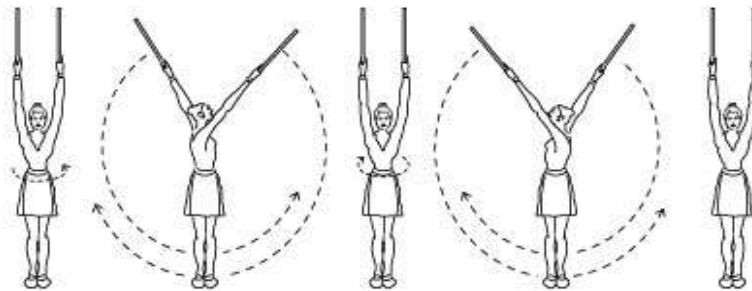
- 양팔에 구리막대를 잡고 동시에 안쪽, 바깥쪽 번갈아 가며 돌린다.
- 신체와 기구의 일체감과 리듬감을 갖게 해주며 지구의 중력과 원심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림 9] 안쪽 바깥쪽 작은 원 그리기

③ 몸 회전하면서 구리막대 회전하기

- 몸을 반 바퀴 옆으로 틀 때 한쪽 구리막대는 밑으로 내리면서 돌고 다시 반 바퀴 돌때 한쪽 구리막대는 위로 가게 실시한다.
- 신체의 축을 이용하여 허리의 유연성과 방향감각 중심을 이용한 바란스와 어깨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그림 10] 몸 회전하면서 구리막대 회전하기

구리볼과 구리막대를 이용한 응용동작을 통하여 긴장 및 스트레스 완화, 신체 안녕감, 창조력 개발, 뭉친 근육, 근력 강화, 유연성, 무력함과 조급함을 예방할 수 있다. 위의 응용동작들은 중력과 인간의 무게 중심점을 이용하여 가볍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오이리트미 중력과 부력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양극성의 치우침을 균형화 한다는 발도르프 교육의 본질을 상기하며 응용한 것이다.

#### (4) 음악 오이리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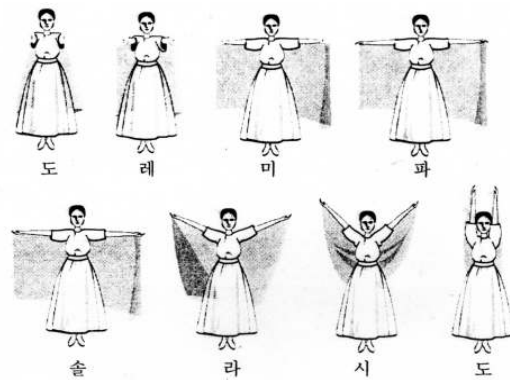
14~21세 시기에는 음악의 고저와 음계의 동작을 가지고 음악에 맞추어 공간을 활용하여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오이리트미를 실현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들을 수만 있는 것을 공간상에서 볼 수 있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음악 오이리트미를 연구하였다. 음악에 문법과 알파벳은 언어와는 다르다. 대신에 음악 오이리트미는 음역(pitch), 주된 리듬을 요소로 작업해야만 했고 실제 음조(tone)를 가진 문법 요소로서는 박자를 A에서 Z의 음조(tone)들 사이의 간격을 사용한다. 공간상에서 음악을 '연주하기'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슈타이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체의 길이를 음역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했고, 리듬(rhythm)과 비트(beat)에 대해서는 전후 움직임의 가능성과 몸의 좌·우측이 가지는 상이성을 이용한다. 한편 두 팔은 음조와 간격을 나타낸다. 오이리트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이 음악 오이리트미를 접하면 마치 꼭두각시 인형과 같을 수 있으며, 기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나, 오이리트미스트들이 오이리트미 동작들을 자신의 영혼의 존재로 인식하여 채우게 됨에 따라 오이리트미스트는 자신을 표현해 내는 음악을 경험하게 된다.

음악 오이리트미는 음의 고저, 리듬, 장단의 요소에 따라 동작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음의 고저를 표현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몸길이를 변화시켜 표현한다든지, 팔의 높이로 마치 피아노 건반을 수직으로 놓은 것 같이 표현하여 음의 고저를 나타낸다. 리듬과 장단을 표현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흔들거나 몸을 수축(contraction)하거나 팽창(expansion)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오이리트미 동작으로 표현하면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음의 고저 오이리트미



[그림 12] 음계 오이리트미

출처 : 김미숙, 2002: 76~77

음의 고저와 음계를 하프, 첼로, 피아노 등에 맞추어 오이리트미로 표현했을 때 어린이들은 감성이 풍부해 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슈타이너는 음악 오이리트미를 위해 많은 기준형태(standard forms)를 만들어 기본 모델로 제공했는데 이것들은 음악의 모티브, 장·단조, 박자들의 진행 같은 음악작품의 구조들을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오이리트미는 자신의 신체공간의 에너지, 근육생리와 감정, 감각과 정서를 연결하여 조화로운 몸 균형 감각을 열어 준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 동작과 연결되어 있는 호흡과 몸동작, 여기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메시지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동작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부재한지를 인지하며 신체동작을 자신의 심리상태와 다른 개별자들과의 관계(친숙과 배제, 조화와 편향, 배려와 집중 등)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오이리트미는 의식에 지배되는 신체가 아니라 의식화된 신체로써 주체적 신체임을 깨닫게 해주며, 신체는 환경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고, 신체의 감각을 통해 형성된 자아는 세계와 결합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 V.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신체교육의 실천

본 논의는 ‘슈타이너 인지학에서 바라본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신체교육에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고대 희랍철학자인 플라톤 사상과 현대 인지심리학자 프뢰벨, 몬테소리, 피아제를 중심으로 슈타이너의 발달론을 비교하였다. 특히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인간발달론 중심의 전인적 인간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고찰하기 위해 인지학에서의 세계관과 인간관, 3중적구조 4구성체론의 홀리스틱 인간형성의 특징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홀리스틱 전인교육을 위한 슈타이너의 교육방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슈타이너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홀리스틱 인간형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방법과 신체교육, 신체운동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첫째, 신체·영혼·정신의 합일적 조화, 둘째, 자아와 사회(인간) 관계의 조화, 셋째, 자아와 우주의 소통(understanding)과 합일(unity)로 그 의미를 예시했다.

슈타이너는 신체를 영혼, 정신이 함께 깃든 유기적 총합의 조화로운 인격체로 인식하였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도르프교육과 오이리트미 예술교육을 발달단계에 따라 실천, 적용하였다.

슈타이너가 제시한 홀리스틱 존재로서의 신체교육특징과 신체운동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1기는 물질체와 에테르체가 형성되는 0~7세의 신체교육에는 움직이는 놀이감이나 간단한 조작을 통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공작놀이기구를 통해 신체감각을 발달하여 감각의 느낌을 통해 감정과 정서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신체와 영혼, 정신이 아직 자각하지 않은 미분화의 상태이며, 신체적 요소, 즉 감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시기로 보았다. 인간

발달론은 감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감각은 어린 영아에게만 특별히 발달된 것이다. 이 감각에서 주어지는 느낌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감성과 감정이 생기며, 이 감성과 감정은 지각과 인지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한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습관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습관은 오랜 반복의 결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성장 후 그 사람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 지각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슈타이너는 신체적 감각에 의한 모방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때 어른은 어린이의 직접적인 모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 또한 유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유아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시기에는 놀이와 공작(노작)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놀이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삶을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작 훈련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손, 발동작과 연관된 감각기관을 자극함으로써 감성과 감정, 사고, 인지능력을 발달시킨다. 슈타이너에 있어서 놀이와 공작(노작), 예술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시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운동은 단순하고 약간의 물건들이 수반한 놀이로 구성 되어 하며, 시각과 청각의 감각을 자극하는 단순한 놀이감등으로 구성 되어 한다. 나무장난감, 인형극 놀이, 엮어주는 포대기, 나무 말과 마차, 자동차, 나무팽이, 그림책, 간단한 끼워 맞추기 등이 좋으며 이때의 놀이기구는 약간의 손에 땀이 날 정도의 손동작이나 두뇌를 자극하는 공작 놀이기구면 된다.

둘째, 제2기에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발달한 자아형성기인 7~14세는 오이리트미 교육을 통해 신체와 영혼, 정신의 조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한다.

모음군 A, E, I, O, U를 모음 오이리트미로 표현하며 내적 자아의 경험 및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육체를 악기와 같은 존재로 새롭게 바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매개체임을 인식하게 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 형태를 따라 움

직이게 하면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동시에 공간 속에서 물 흐르듯 신속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오이리트미 훈련을 통해 자유롭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운다. 리듬은 상승리듬과 하강리듬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승리듬은 약강 간격이 포함되며 이때의 움직임은 목표지점을 향하여 앞으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하강리듬은 목표물에서 멀어지고, 뒤로 가는 움직임으로 때로는 짧은 걸음내에서 갑자기 멈추는 것과 같은 강, 약 간격을 포함한다.

이시기의 신체교육은 실제적이고 폭넓은 노작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든 방면의 생활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 활동을 갖게 하고, 신체적 활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수공 기술, 목공일, 농사짓는 일(채소 과일 재배와 관찰)에서 실용성과 함께 삶의 심미적 안목을 키움으로서 신체와 일상적 삶의 조화와 실천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과 리듬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영역 모두에서 증가하는 중력에 저항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협력을 통한 배움이 강조가 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미리배운 기술에 대한 숙련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게 한다.

셋째, 제3기에는 14~21세의 사고 발달의 시기로서 사춘기를 지나 육체, 영혼, 정신의 세 요소가 보다 정교하게 분리되며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슈타이너는 이 시기를 절대적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의 시기라고 말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자아의 본성’은 곧 ‘인간다움(자신다움)’의 주체적 발견을 말한다.

이시기에는 음악에 맞추어 오이리트미를 표현할 수 있다. 공간상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체를 사용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길이를 음역으로 나타내는데 사용했고, 리듬과 비트로 전후 움직임의 가능성과 좌·우측이 가지는 상이성을 이용한다. 두 팔은 음조와 간격을 나타낸다.

이시기의 신체운동은 기술 개발, 스포츠와 관련된 테크닉 훈련, 수비에 대한 초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새로운 스포츠와 게임, 암벽등반, 육상경기, 크로스컨트리, 매트 구르기, 곡예, 특수 동역학과 보트머 제조, 박력 있고 힘차면서도 균형 잡혀 있는 훈련 프로그램, 골프, 라켓볼, 매트구르기, 곡예 등을 실천한다. 이때 자세, 변형, 정확성, 의식적인 움직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보다 조화로운 움직임을 갖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서로서로 보다 강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타이너는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간과하였던 영혼과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신체와 영혼, 정신이 통합된 인간을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의 인지학을 통해 인간을 신체와 영혼, 정신이 조화된 홀리스틱한 존재로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홀리스틱인간형성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스포츠계에서의 최우선적 실천은 홀리스틱한 존재로서의 인간인식을 정립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둘째, 체육·스포츠계는 체육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신체의 기계론적 발달 구조를 뛰어 넘어 신체에 내재한 영혼과 정신, 감성과 정서의 유기적인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체육·스포츠계는 인간 존재에 대한 전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신체·영혼·정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체육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들이 왜 신체교육 및 신체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늘 깨어있도록 해야 한다.

슈타이너의 신체교육의 특성은 일상적 삶으로의 구체적 실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실천은 다름 아닌 자연과 우주,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 조화를 이룬 전인적 존재로서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 <슈타이너의 저서>

- Rudolf Steiner(1947). *In Spiritual Ground of Education*, London: Anthroposophical Publishing Co.
- \_\_\_\_\_ (1965). *The Education of the Child, in the Light of Anthroposophy*,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_\_\_\_\_ (1971). *Theosophy: An introduction to the supersensible knowledge of the world and the destination of man*. Translated by Henry B. Monges and revised by Gilbert Church. New York: Anthroposophic Press.
- \_\_\_\_\_ (1972a). *A Modern Art of Education*,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_\_\_\_\_ (1972b). *Study of Man - General Education Course*,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_\_\_\_\_ (1981). *A Modern Art of Education*,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_\_\_\_\_ (1982). *The Roots of Education*,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_\_\_\_\_ (1988). *The Child's Changing Consciousness & Waldorf Education*, Everlett Roland. New York: Anthroposophic Press.

## <국내문헌>

- 게리 쥬카브(1998). 『춤추는 물리』. 서울: 범양출판사.
- 곽노의(1990). 『프뢰벨의 유아교육이론 연구』. 서울: 학민사.
- 권오순 / 권오돈 역(1990). 『禮記 (下卷) - 樂記』. 서울: 홍신문화사.
- 김기웅·곽은정 공저(1998). 『유아 및 아동체육』. 서울: 보경문화사.
- 김기웅외 2인(1994). 『운동행동의 심리학』. 서울: 보경문화사.
- 김기현(2001). 『발달생물학』. 서울: 현대의학사.
- 박덕규 편(2004). 『피아제의 발생학적 인식론과 구조론』. 서울: 민성사.
- 빅터 E. 프랭클 / 오승훈 역(2005).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서울: 청아출판사.
- 알베르트 수스만 / 서영숙 역(2007).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서울: 섬돌출판사.
- 정윤경(2000).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학교』.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크리스토프 린던베르크 / 이정희 역(1998). 『슈타이너』. 서울: 한길사.
- 크리스티안 노스립 / 강현주 역(2000).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
- 프랭크 킬리 / 김기찬 역(1999). 『서양철학사』. 서울: 현대지성사.
- 한국루돌프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편(1997). 「발도르프 교육자료 모음집」.
- F. 카울바하 / 백종현 역(1992).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서울: 서광사.
- G. 레이코프·M. 존슨 / 임지룡, 윤희수, 나익주 역(2002).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 Herbert P. Ginsburg & Sylvia Opper / 김정민 역(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서울: 학지사.
- John P. Miller / 김현재 외역(2000). 『홀리스틱 교육과정』. 서울: 책사랑.

- M. Montessori / 조성자 역(1998). 『어린이의 정신』. 서울: 창지사.
- Rudolf Steiner / 양역관 역(1999). 『초감각적 세계인식』. 서울: 물병자리.
- \_\_\_\_\_ / 양역관 역(2001). 『신지학』. 서울: 물병자리.
- \_\_\_\_\_ / 김성숙 역(2003). 『오이리트미 예술』. 서울: 물병자리.
- \_\_\_\_\_ / 최혜경 역(2007a).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 서울: 밝은누리.
- \_\_\_\_\_ / 최혜경 역(2007b). 『자유의 철학』. 서울: 밝은누리.

### <논문 및 자료>

- 강상희(1993). 「발도르프교육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미숙(2002).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오이리트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3). 「통합적인 인간형성에 관한 인지학적 접근」. 한국체육철학회지, 11(1).
- \_\_\_\_\_ (2006).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몸 탐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4(4).
- 김미숙·임영희(2009). 「슈타이너 인지학에서의 신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 박영만(2002). 「홀리스틱이란 무엇인가 - 전환기의 교육 패러다임과 홀리스틱 교육」.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 사미경(2005). 「아동복지에 있어서 Montessori교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 임용자(2000). 「발달 및 치료도구로서의 교육예술 유리드미」. 한국심리학회지, Vol.12, No.2.

- 전일균(1996a). 「루돌프 슈타이너의 노작교육론」. 교육학연구, Vol.34, No.5.
- \_\_\_\_\_ (1996b). 「인지학적 교육론 연구」. 교육철학, 제14권 2호.
- 정문성(2002). 「홀리스틱이란 무엇인가 - 세계문화의 흐름과 홀리스틱교육」.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 정미라(1995).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본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Vol.13, No.4.
- 정수진(2006).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론에 기초한 수업 지도안 연구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태·김성원(2000).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과 인간 기질에 관한 연구」. 교육학 논총, 제21권 제2호.
- 조한무(2004). 「홀리스틱 체육교육」,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최종인(2004). 「발도르프교육학(Waldorfpädagogik)과 인지학(Anthroposophie)」. 한국교육학연구, 9(1).

#### <외국문헌>

- A. Nobel(1996). *Education through Art : The Steiner School Approach*. Edinburgh: Floris Books.
- Debbie Shapiro(1996). *Your Body Speaks Your Mind*, Judy Piatkus.
- Fischer, K. W(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y Review, 87(6).
- Freda Easton(1997). *"Educating the Whole Child, 'Head, Heart, and Hands': Learning From the Waldorf Experience"*, Theory into practice, Volume 36, Number 2, Spring.

- Gallahue, D.L.(1982). *Development movement experiences for children*, New York: John Wiley Sons.
- Georg W. Hegel(2006). *The Philosophy of Mind, trans, Inwood*, New York: Oxford.
- Gilbert Childs(1991). *Steiner Education(in theory and practice)*. Floris Books.
- Jacob Needleman(1982). *The heart of philosophy*, New York: Alfred A. Knopf.
- Karl Jaspers(2000). *Was ist der Mensch?*, Munchen.
- Marry Caroline Richards(1980). *TOWARD WHOLENESS(Rudolf Steiner Education)*, Wesleyan University Press.
- Plato(1926). *Laws, Books VII–XII.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R. G. B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Plato(1980). *THE REPUBLIC VI, 494a,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Paul, Shorey*,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 Site>

- 과천자유학교. <http://www.gcfreeschool.kr/>
- 구름산학교. <http://www.gurmsan.kr/>
- 김용근의 발도르프 교육. <http://www.waldorf.co.kr/>
- 동림자유학교. <http://www.drffreeschool.kr/>
- 사과나무학교. <http://appletreeschool.kr/>
- 슈타이너교육예술연구소. <http://cafe.naver.com/steinereduart/>
- 아이라움. <http://cafe.daum.net/iraum/>

푸른숲학교. <http://www.gforest.or.kr/>

한국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연구센터. <http://www.steinercenter.org/>

한국 슈타이너교육 협회. <http://www.waldorf.or.kr/>

한국발도르프특수교육센터. <http://cafe.daum.net/Wittenwaldorf/>

Rudolf Steiner Archive. <http://www.rsarchive.org/>

Waldorf Answers. <http://www.waldorfanswers.com/>

# ABSTRACT

## A Study of Movement Education as Steiner's Holistic Existence

Lim, Young H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Holistic Education is not only to harmonize body, soul, and spirit but also to harmonize one's ego, internal accord, and ego with the world (society, mankind, and environment). The meaning and the aim of Holistic Education is 'humanity' when we compare with the animals and things and when we say about particular characters only humans have. Then what is another feature of humanity that only humans have unlike the animals and things? That is mentioned a liberal person that ego with the world and ego with the universe, communicate and sympathy through the harmony of body, soul, and spirit. Steiner precisely defines the concept of anthroposophy, "Anthroposophy is to recognize the ego that it is to find out the effect not only the world of the sensual recognition but also how the existence of former lives."

Here Steiner understood the mankind, not in the general humanics perspective but in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level which synthesize a

general view of the former lives and the present lives.

Steiner asserts that humans are related to the universe. It is found that the triple structure of body, soul and spirit, is equally ubiquitous in the universe and is produced the body, the soul, and the spirit when humans incarnate with the movement body, the etheric body, and the astral body in the universe. Then these components are composed of a self body in the end.

The keynote of Steiner's triple structure 4 composition bodies theory is understood, not the existence composed simply movement body, etheric body and astral body, but also Holistic existence of human based on the communication and the unification of human and the universe by expanding the existence of human to the nature and the universe as the organic existence.

Furthermore Steiner is mentioning the features of Human Development for human's accomplishment as Holistic existence. Steiner classifies 3 stages of Human Development and they are shown characteristic developing stages every '7 years'. As following is specified stages.

First stage is 'movement body' development stage from 0~7 years old. This stage is where body, soul, and spirit are not recognized and undivided yet, and the sense is the most developed. The Human Development begins from the sense. This sense is developed particularly to the infants. Base on this sense, infants emotion and the sensibility improves according to the sense of feeling, and effects to the recognition system, and forms a habit shown the character of human. And these habits effect definitely to thinking ability, recognition ability and perception ability after growing because they are the result of the

repeating habit. Steiner asserts that infants imitate learning by impression through movement sense. And these habits effect conclusively to the ability of perception, the intelligence and the thinking according to the growth by the results of repeating for a long time. At this time adults become a direct model for the infants imitation learning. For the period of kids attending kindergartens, behaviors of educators are important. Thus, educators need to teach meaningful actions, be exemplary and create an education environment which stimulates children's sensory organs.

Second stage is forming stage of ego from 7 to 14 years old. In this stage, body, soul and spirit start to divide fast with individual ego. And it means that the soul begins forming the 'feeling' of the emotion and the sense. In this stage the soul means the development of self-centered recognition. Especially second stage is mostly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feeling and the emotion. And then the developed feeling and emotion come into a person's tendency, temper, consciousness, personality, memories and habits.

The third stage is that the abstract thinking develops to feel with delicate difference of three elements, body, soul and spirit going through the puberty.

So Steiner says this third stage is the 'nature of liberal ego' where it advances toward absolute spirit. 'Nature of liberal ego' implies subjective discovery that

humanity meant Holistic existence which unified the ego and the universe.

The results of studying 'Holistic Human in Steiner's anthroposophy

perspective focused on the Human's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He educates the Human Education that aims for a unified human who body, soul, and spirit are unified. He understands that Holistic existence is harmony of body, soul and spirit through his anthroposophy theory. But modern education has a little tendency to leave soul and spirit out of education and sports, because they can not be reasonable object. And in modern movement education, a human is not divided into three parts—body, soul, and spirit—but specified into two parts—body and spirit.

Modern education prejudices toward intellectualism which emphasizes only rational logos, furthermore the unification of body, soul and spirit is ignored in intense competition which is inquired only movement training and high skills in present sports and movement education. It is not too much say that these neglected values of Holistic Human has educated as only biased—persons, they have accelerated the pathological inhumanity in the society. But Steiner takes aim for the liberal human who unified body, soul and spirit by emphasizing Human Education through Holistic Human.

Second, he provided the area of a new education based on anthroposophy which has new perspective about humans. Anthroposophy is based on right understanding of human and to analyze the existence of human that is extended to the area of former life, present life and postmortem life. Also He provided a foundation that can understand the existence of human more extensively with the meaning of human's death, does not end with human's dead body. And the existence of human is related to the universe through circulation, mutation and

creation of soul and spirit.

Third, Steiner's conception is composed of sensory development the abundance of feelings and emotions and improvement of Logos and the spirit, in order to extract the potential ability of children.

Today brushing up on skill education is for only movement practice in sports movement education, and is far from holistic education as breaking the harmony of body, soul and spirit. Hence the true aim in modern sport and movement education, is to educate aesthetic humanity, not to win the medal.

Last, Steiner's idea based on Anthroposophy, made it possible for children to devote to be educated as Holistic Human through educator's self-regulating curriculum, creative teachings, and considering children's characters, without subordination of the nation's politics. These features are inquired more sincerely in modern sport and movement education and are shown examples of practical models. The distinctive quality of Steiner's movement education is regarded as a concrete practice in daily routines. And this practice is represented the Holistic Human which unified, the nature and the universe, and human and the society.